

월간

공군



제558호 12

Contents

Republic of Korea Air Force Magazine

04 **지금 이 순간!**
공군 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 소식



12 **기획**
2024 공군 10대 뉴스

14 **내 옆의 공군인**
KBS '전설의 취사병' 우승팀
에어포스(Air Fours)

18 **공군 부대 탐방**
제8전투비행단

22 **이달의 공군史**
우리 공군, 처음으로 타국의 하늘을 날다!

24 **역사 속 공군 이야기**
공군의 독립 프로젝트, 공군사관학교의 창설

28 **Aero Detail**
대한민국 공군의 항공통제기, E-737 피스 아이



33 **시즌 브리핑**
2024년 연말정산 살펴보기

표 지 (앞) 석양이 지는 하늘을 비행하는 E-737 피스 아이(병장 문준혁)
표 지 (뒤)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는 하늘이프렌즈(최수정 작가)
발 행 일 자 2024년 12월 1일(통권 제558호)
발 행 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이영수
편 집 인 공군본부 정훈실장 대령 김권희
편 집 감 수 공군본부 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장 중령 김세현
기 획 · 편 집 공군본부 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대위 서현욱, 중사 강지영
전 자 도 서 관 www.afzine.co.kr

디자인·인쇄 국방출판지원단(F24110510)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 및 인터뷰는 개인의 견해를 알려드립니다.

34 **공군인이 들려주는 미술 이야기**
 논리와 신체가 만들어내는 회화적 선율
 - 작가 이건용

38 **항공우주박물관 답사기**
 필리핀. 마닐라



42 **한 달, 한 권**
 『숨겨진 건 죽음』, ‘고전 미스터리’의 부활

44 **식탁 위의 군대 이야기**
 밀: 빵에 담긴 역사와 문화

46 **동서양 그랜드투어**
 K- 팡파르 대취타

48 **영화로운 나날**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50 **생각하는 그림**
 마티법(Loi Mathys)

52 **편집실입니다**
 눈이 전하는 위로

53 **책 읽는 공군**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
 (방공관제사령부 제318방공관제대대 상병 민동욱)

54 **공군인의 하루**
 마지막 모습이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제11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병장 여지환)

55 **마음의 소리**
 독자 참여 코너



월간
공군



프리덤 플래그(Freedom Flag) 훈련

대한민국 공군은 10월 21일(월) ~ 11월 1일(금), 주한 및 주일 미군과 호주 공군이 참여한 가운데 2주에 걸쳐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프리덤 플래그(Freedom Flag)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대한민국 공군의 F-15K, F-35A, F-16, FA-50 등 전력과 美 공군의 F-35B, F-16, A-10, MQ-9 무인기 등 총 110여 대의 한미 공중전력이 참가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호주 공군의 KC-30A 공중급유기도 전개했다. 특히, 최초로 전투기와 무인기가 함께 임무에 참여했으며 대한민국 공군의 F-15K와 미국 공군의 MQ-9 리퍼가 동일한 표적에 대해 실사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GBU-12 공대지 유도폭탄을 투하하고 있는 F-15K 전투기



GBU-12 공대지 유도폭탄이 고정 표적을 정확히 명중한 모습



함께 훈련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 F-15K 전투기(우측 2대)와 미국 공군 MQ-9 리퍼(좌측1대)

2024년 유도탄 사격대회 개최

대한민국 공군은 10월 30일(수), 11월 6일(수), 2차례에 걸쳐 미사일방어사령부 예하 사격지원대에서 2024년 유도탄 사격대회를 실시했다. 사격대회에는 천궁, 천궁II, 패트리엇 운용 포대가 참여했다. 해당 무기체계들은 한국형 3축체계 중 하나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의 핵심전력들로 대한민국 공군은 대회를 통해 적 공중도발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방공능력을 입증했다.



패트리엇 발사



천궁 II 발사를 위해 출동하는 작전요원들



천궁 II 발사





2024 열린우주포럼

이영수 참모총장은 11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24 열린우주포럼」에 참석해 '다부처 우주전략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군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성일종 국방위원장, 황희 국방위원,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공군본부가 주관했다. 참모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주개발은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과 전문인력, 많은 예산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긴밀한 민·관·군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법적·제도적 기반마련과 예산지원은 물론 대한민국 우주개발 정책을 객관적으로 감독하고 평가해줘야 할 국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미사일 방어부대 대비태세 현장지도



이영수 참모총장은 11월 6일(수) 천공 I 을 운용하며 수도권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부대를 찾아 임무 요원들을 격려하고 적 도발 유형별 대응 절차, 유도탄 유지·보수 현황 등 대비태세 전반을 점검했다. 참모총장은 “북한은 화성 19형 ICBM 발사 등 대남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수도권 영공방위를 책임진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철저한 감시를 통한 즉응태세를 유지하며 어떠한 도발에도 국민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실전적인 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초급간부 소통행사



이영수 참모총장은 11월 13일(수) 충청남도 계룡대 일대에서 공군본부 소속 초급간부 10여 명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모총장은 초급간부들과 함께 계룡대 인근 둘레길을 함께 걸으며 복무여건부터 일상생활까지 폭넓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참모총장은 “우리 군의 미래인 초급간부들이 제복을 자랑스러워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복무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총장의 중요한 의무”라며 “오늘 들은 초급간부들의 다양한 고민과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군사관학교

2024 성무제

공군사관학교는 10월 30일(수) ~ 11월 1일(금), 'Harmonia: 함께 또 같이'를 주제로 학교 축제인 성무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사관생도들이 축제의 기획자가 되어 뮤지컬, 버스킹 공연,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번 성무제는 생도들은 물론 지역 대학생, 장병, 군 가족들이 참여해 즐기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운영되었다.



제5공중기동비행단

당말리 공중투하훈련장 인근 마을 대민지원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11월 4일(월) ~ 11일(월), 공중투하훈련장이 위치한 경상남도 의령군 낙서면 일대 마을을 대상으로 대민지원을 실시했다. 이번 대민지원은 단감 수확기를 맞아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고 지역주민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며, 6일 동안 하루에 40명씩 연인원 200여 명이 참여했다.



제15특수임무비행단

민·군 합동 피해복구훈련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11월 13일(수), 기지 내 피해복구 훈련장에서 전시 활주로 피해복구 훈련을 실시했다. 활주로 피해복구 훈련은 전시 항공작전 지속을 위한 필수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공군뿐만 아니라 전시 동원업체도 함께 참여했다. 15비 훈련 요원들은 훈련을 통해 동원업체와의 공조체계를 점검하고 피해복구 노하우를 공유하며 활주로 피해복구 역량을 증진했다.



제16전투비행단

군·관 합동 소방훈련

제16전투비행단은 11월 6일(수), 기지 내 화재 상황에 대한 유관 기관과의 합동 대응능력 증진을 위해 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예천 소방서와 함께 진행한 이번 훈련은 기지 내 폭발물 저장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다. 16전비와 예천 소방서 소방요원들은 훈련을 실시하며 군·관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화재 상황에 대한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했다.



제20전투비행단

'24-6차 쌍매훈련

제20전투비행단은 11월 4일(월) ~ 7일(목), 美 8비행단과 함께 군산기지에서 '24-6차 쌍매훈련(Buddy Wing)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한측의 KF-16과 미측 F-16 등 20여 대의 전투기가 참여했다. 한미 공군은 항공차단(AI, Air Interdiction), 방어제공(DCA, Defensive Counter Air) 등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연합 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는 한편, 양국 간 팀워크를 강화했다. 더불어, 최신 전술에 대한 교류의 시간을 가지며 상호 발전을 도모했다.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한미 항공구조사 연합 지상훈련

제6탐색구조비행전대는 11월 5일(화) ~ 8일(금), 美 31구조대대와 함께 한미 항공구조사 연합 지상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양국 항공 구조사들의 연합 임무절차 숙달을 위해 계획되었다. 전투부상자처치, 적군 지역 내 구조작전 시나리오 훈련 등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한미 항공구조사들은 서로의 작전경험을 공유하고 연합 특수작전 및 인명구조 작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2024 공군 10대 뉴스

푸른 용의 해, 2024년 갑진년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창군 75주년을 맞은 뜻깊은 한 해인 2024년 대한민국 공군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고 2024년을 마무리하는 기획을 월간『공군』 편집실에서 준비했다.

F-4 팬텀 전투기 퇴역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명예 전역장을 수여 받은 F-4 팬텀

6월 7일(금), 지난 55년 동안 대한민국 영공을 지켜온 F-4 팬텀 전투기가 임무를 마치고

퇴역했다. F-4 팬텀은 1969년 처음 도입되었고 소흑산도 간첩선 격침 등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며 영공방위의 핵심전력으로 활약했다. F-4 팬텀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명예 전역장을 수여 받고 한국형 전투기 KF-21, F-35A 등 최신 전투기들에게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사명을 넘겨주었다.

레바논 재외국민 귀국 지원



레바논 재외국민 귀국 지원

2024년 9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 헤즈볼라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레바논을 향한 공습을 본격화함에 따라 대한민국 공군은 10월 3일(목), KC-330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와 C-130J 수송기를 현지에 급파했다. 그리고 10월 5일(토), 약 90여 명의 재외국민을 안전하게 귀국시켰다.

01 02



공군 우주작전전대 창설



공군 우주작전전대 창설

6월 28일(금), 공군 우주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우주작전대대를 확대하여 우주작전전대를 창설했다. 우주작전전대는 향후 전력화될 우주기상 예·경보체계와 초소형 위성체계 등 우주전력을 운용하며 우주 위협·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03 04



한·미·일 공군참모총장급 화상회의 최초 실시

11월 21일(목),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데이비드 앨빈(David W. Allvin) 美 공군참모총장(대장), 우치쿠라 히로아키(内倉浩昭) 日 항공자위대 막료장(대장)과 한·미·일 공군참모총장급 화상회의를 실시했다. 3국 공군참모총장급 지휘관들은 3국 정상과 국방장관들이 논의한 국방·안보협력 사안을 공군 차원의 노력을 통해 더욱 발전시키며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미·일 공군참모총장급 화상회의

공군 AI 신기술융합센터 개소



공군 AI 신기술융합센터 개소

5월 29일(수), 공군 AI 신기술 융합센터가 서울 AI 허브 메인 센터에 개소했다.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유관기관들과 차근차근 업무협약을 맺으며 준비해온 결실을 맺은 것이다. 공군 AI 신기술융합센터는 'AI를 활용한 전 임무분야 혁신과 미래 항공 우주력 건설'을 목표로 공군의 AI 기술 비전을 실현시켜나갈 것이다.

K-방산 홍보의 선봉장, 블랙이글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2월 20일(화) ~ 25일(일), 3월 3일(일) ~ 5일(화), 각각 싱가포르와 필리핀 에



싱가포르 에어쇼에 참가한 블랙이글스

어쇼에 참여하여 뛰어난 기동을 선보였다. 블랙이글스는 해외 에어쇼뿐만 아니라 사천 에어쇼 등 다양한 국내 행사에서도 활약하며 우리 조종사들의 우수한 실력은 물론,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입증하며 K-방산 홍보의 선봉장 역할을 해내고 있다.

동맹국 및 주요 우방국과 연합작전 능력 증진



F-35A, F-22 연합 편대

대한민국 공군은 2024년 미국과의 다양한 연합훈련을 펼치며 강력한 한미 연합 항공력을 과시했다. 특히,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Freedom Edge) 훈련을 최초로 실시하며 공중, 수상, 수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연합작전 능력을 증진했다. 더불어, 대한민국 공군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피치 블랙(Pitch Black) 훈련 등 다국적 연합훈련에 참여하며 대한민국 공군이 가진 역량을 세계에 선보였다.

대한민국 공군은 2024년 미국과의 다양한 연합훈련을 펼치며 강력한 한미 연합 항공력을 과시했다.

특히,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Freedom Edge) 훈련을 최초로 실시하며 공중, 수상, 수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연합작전 능력을 증진했다. 더불어, 대한민국 공군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피치 블랙(Pitch Black) 훈련 등 다국적 연합훈련에 참여하며 대한민국 공군이 가진 역량을 세계에 선보였다.

05
06



07
08



09
10



지역축제로 거듭나며 새 도약을 한 Space Challenge 2024

항공우주축제로 재탄생하게 된 Space Challenge가 4월 20일(토) ~ 9월 22일(일), 대구, 수원, 원주, 광주, 충주 5개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45 회째를 맞이한 Space Challenge는 올해부터 기존 대회형식에서 탈피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축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재탄생'한 Space Challenge는 블랙이글스 에어쇼, 탐색구조



2024 Space Challenge

시범, 항공기 및 무장전시, 수송기 탐색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

7년 만에 타우러스(TAURUS) 실사격 성공

대한민국 공군은 10월 10일(목),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타우러스(Target Adaptive Unitary and dispenser Robotic Ubiquity System) 실사격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최대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은 조종사와 전투기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무기체계이다.



타우러스 미사일을 발사하는 F-15K 전투기

공군 지능정보체계관리단,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전군 최초 국무총리상 수상

9월 11일(수), 공군 지능정보체계관리단은 '공군 생성형 AI 플랫폼 에어워즈(AirWARDS) 구축'으로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공군 생성형 AI 플랫폼 에어워즈(AirWARDS)'는 번역, 통합검색, 문서요약 등 5개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방혁신 4.0 이행, 병력 감소



시상식에 참여한 공군 지능정보체계관리단

소 대비 임무안정성 및 업무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4]

내 옆의 공군인

제59화
KBS '전설의 취사병'
우승팀
에어포스(Air Fours)



안녕하십니까? 월간 『공군』 구독자 여러분! 저희는 KBS에서 방영된 ‘전설의 취사병’이라는 취사병들의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 에어포스(Air Fours)라는 팀명으로 참여하여 우승을 차지한 제2미사일방어여단 급양병 병장 김민찬, 병장 채명주, 병장 최진혁, 병장 최준철입니다. 같은 급양병으로 동고동락하는 저희들은 부대원들, 나아가 전 국군 장병들에게 조금 더 맛있고 든든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월간 『공군』 구독자 여러분들께 오늘은 맛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 트로피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에어포스 팀

급양병을 선택한 이유는?

병장 최준철

저는 사실 조리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입대 전까지 요식업계에서 일했습니다. 사회에서의 경력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군에서도 요리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싶었기 때문에 조리전문특기병으로 지원해서 전문조리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병장 김민찬

최준철 병장과 달리 저와 채명주 병장, 최진혁 병장은 입대하기 전에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3명 모두 마치 누군가에게 점지받은 듯 급양병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강도에 대한 소문에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지금은 만족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설의 취사병’ 출연을 결심한 이유는?

병장 김민찬

‘전설의 취사병’ 프로그램 촬영 전에 제13회 공군 조리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병장이 되어버린 당시 최준철 상병과 함께 나가서 입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억과 자신감을 가지고 전군의 취사병들과 함께 겨뤄보고 싶다는 마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장 최진혁

옆에서 함께 일하는 김민찬 병장과 최준철 병장이 공군 조리경연대회에 나가 수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분이 연습도 하고 메뉴 개발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도 요리대회가 있으면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침 ‘전설의 취사병’ 모집 공고가 내려와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

병장 채명주

여름에 주로 대회 준비와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루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부대 뿐만 아니라 주변 시내까지 마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장병들의 외출이 제한되었습니다. 결승 연습을 위한 식재료를 사러 가야 했지만 그럴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부대에 남아있는 부식으로만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남은 부식으로 요리를 하며 '가지를 활용한 멘보샤' 요리를 생각해낼 수 있었고 이 메뉴를 결승전에 선보이며 우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사고도 있었다?

병장 최진혁

(웃으며) 저를 이야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본선 중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4강 전에 손가락을 베인 적이 있었습니다. 실은 제가 진짜로 칼질을 하다가 다쳐본 것이 처음입니다. 확실히 대회가 주는 압박감이 있어 다소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친 부위가 생각보다 지혈이 잘 안되었고 응급실로 가서 4바늘을 꿰맸습니다. 제가 없었지만 침착하게 대회를 이어가며 준결승을 승리로 이끌어준 팀원들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입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있는 에어포스 팀

우승의 비결은?

병장 최준철

경연에 나가고 다른 팀들의 경력을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뛰어난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팀에게는 이러한 경력을 이길 수 있는 팀워크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팀들은 요리에 대해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오히려 의견이 갈리며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 팀 팀원들은 요리 경력을 가지고 있던 저의 말을 단 한 번의 불평 없이 믿어주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협업한 팀워크가 있었기에 화려한 경력의 팀들을 이기고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장 김민찬

저도 이 부분은 최준철 병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화려한 경력들을 가진 팀들 중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팀은 모두 같은 부대에서 동고동락하며 근무한 친한(후임들의 눈치를 살피며) 선후임 관계였고, 막내지만 사회에서 요리 경력을 가지고 있던 최준철 병장의 말을 전적으로 믿으며 화합했기에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의견을 나누는 김민찬 병장(좌)과 최준철 병장(우)

대회를 통해 얻게 된 교훈은?

병장 채명주

하려고던 일, 하고 싶은 일과 다르더라도 열정을 가진다면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특별하지 않아 보이는 이 말을 입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취를 하며 ‘국간장을 들이부어 너무 짠 칼국수’, ‘있는



음식을 조리하고 있는 채명주 병장

채소를 때려 넣은 비빔밥’ 등을 만든 것이 요리 경력의 전부였던 저이지만 현재 수백명을 먹게할 맛있는 식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연에 나가서 우승까지하고 나니 중요한 것은 직접 해보고 부딪히는 것이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목표와 계획?

병장 최준철

이번 대회는 저에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리를 해왔지만 항상 저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내 요리가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요리를 잘하나?’와 같은 의문들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프인 심사위원들과 다른 병사들에게 저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며 그동안 가졌던 의문들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얻은 것들을 바탕으로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저에게 맞는 분야를 찾아 최고의 요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장 최진혁

세상에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대회를 통해 직접 피부로 느낀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취미’로 요리를 즐기며 뛰어난 요리사들의 요리를 소비자로서 살아가려 합니다. 다만, 요리에 흥미를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가끔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군에서 양식조리 기능사 자격을 획득했고 중식조리 기능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역을 한 후에도 관련 조리 기능사 자격을 준비하며 도전을 이어가려 합니다.

구독자분께 한마디



완성된 결승전 식판 (김 부각 버팔로링, 백두기 무생채, 여항 가지 멘보샤, 팟타이, 맑은 사태탕)

병장 김민찬

에어포스의 팀장으로 팀원들을 대표해 저희의 결승 식판에 대해 설명드리며 구독자 분들께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의 결승 식판에는 육(소고기), 해(새우), 공(버팔로링)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식판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육·해·공군 모든 장병들이 힘을 내길 바라는 저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군에 관계없이 모든 급양병들은 여러분들이 부대 식당에 앉아 맛있게 먹는 그 한순간을 위해 늘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병 여러분의 맛있는 식사를 위해 매일매일 총 대신 불과 칼로 싸우는 급양병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군 부대 탐방



제8전투비행단

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전투, 감시, 정찰, 대공방어, 교육·훈련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영공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다. 월간 『공군』 편집실에서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활약하고 있는 우리 공군의 여러 부대를 탐방하며 부대의 역사와 임무 그리고 비전을 전하는 기획 연재를 준비했다. 이번 호에서 알아볼 부대는 중·북부 영공방위의 핵심기지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이하 8전비)이다.

제8전투비행단의 역사

8전비는 “우리는 한마음!”, “싸워서 이기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대한민국 중·북부 영공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최정예 전투 비행단이다. FA-50, KA-1과 같은 국산 항공기를 주력으로 운영하는 8전비는 적 도발에 대비해 즉각 대응태세를 항시 유지하며, 전투조종사가 최상의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전적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8전비는 적 비대칭·재래식 전력의 격퇴, 공중 우세 확보, 지·해상군 합동작전을 통해 전승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영공방위의 최선봉에 서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1971년 O-1G 항공기 도입으로 제36전술항공통제전대가 창설된다. 제36전술항공통제전대는 O-1G 항공기를 통해 정찰 및 연락임무 등을 수행하며 성장하였고 1975년 황성기지에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토대 아래 1979년 제36전술항공통제전대는 제8전술통제비행단으로 승격되며 본격적인 8전비의 역사가 시작된다.

제8전술통제비행단은 1982년 훈련기인 T-28A를 도입하여 비행훈련을 시행하는 한편, 경공격기인 A-37B를 도입하여 본격적인 전투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한다. 이후, F-5 전투기를 도입하여 전투임무를 운용하기 시작



O-1G

한 제8전술통제비행단을 제8전투비행단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어서, 1992년 제103전투비행대대를 예속시키고 1999년에는 공격형 무인기를 도입하며 전력을 확충하였다. A-37B 경공격기와 F-5 전투기 같은 유인 항공기뿐만 아니라 무인 항공기를 함께 운용하며 8전비는 유·무인 전력을 모두 갖춘 전투비행단으로 성장해나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국산 훈련기인 KT-1을 개량한 전술항공통제 공격기 KA-1을 2005년부터 운용하기 시작했다. 2012년부터 KA-1은 8전비에 자리 잡게 되었고 8전비는 국산 항공기 운용을 시작하게 되었다. KA-1의 운용에 이어서 2013년에는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최초의 전투 임무기인 FA-50을 도입, 2014년에 전력화를 완료하여 기존에 운용하던 F-5 전투기를 대체하였다. 이후에도 8전비는 중·북부 영공방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KA-1, FA-50 등 국산 항공기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그 우수성을 입증하여 핀란드, 폴란드,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 수출하는 데 이바지하며 대한민국 항공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부대 연혁〉

1979. 8. 1.	제8전술통제비행단 창설 * 제36전술통제전대→제8전술통제비행단	
1988. 7. 1.	제203전투비행대대 예속 변경(17비→8비)	
1988. 8. 1.	제8전술통제비행단→제8전투비행단 명칭 변경	
1992. 11. 2.	제103전투비행대대 예속변경(18비→8비)	
2007. 6. 30.	A-37B 퇴역	
2012. 12. 3.	KA-1 운용 시작	
2013. 5. 17.	제103전투비행대대 FA-50 전환 창설 * 2013. 2. 28.부 F-5E/F	
2013. 8. 21.	제103전투비행대대 FA-50 1호기 인수 및 첫 비행 실시	
2014. 10. 30.	FA-50 전력화 기념식 시행	
2015. 8. 3.	제203전투비행대대 FA-50 전환 창설	
2023. 10. 5.	FA-50,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13. 8. 21. ~ '23. 10. 5.) * 제16전투비행단 제202전투비행대대 포함 기록	
⋮	⋮	⋮

제8전투비행단의 주요 임무

현재 8전비는 FA-50과 KA-1을 운용하며 대한민국 중·북부 영공방위의 핵심부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8전비의 주력으로 운용되는 FA-50은 대한민국이 만든 최초의 전투임무기로 2013년 8전비에 실전배치되었다. ‘파이팅 이글(Fighting Eagle)’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FA-50은 공대공 미사일 AIM-9과 공대지·공대함 미사일 AGM-65, JDAM 공대지 정밀유도폭탄 등 다양한 정밀유도 무기를 통해 초계 임무 및 타국 전투기 대응, 유사시에 주요시설 타격과 함정공격까지 담당하며 공중 요격은 물론 지·해상 표적 공격까지 수행할 수 있다. 향후 성능개량을 통해 확장된 전투행동반경과 무장장착능력, 발전된 항전장비 능력을 갖추어 나가며 미래 전장에서 핵심적인 전력으로 지속 활약할 것이다.

KA-1은 전반적인 공중 상황을 통제하는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중심으로 해상전투 초계, 방어제공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적 지상목표를 공격하기에 앞서 작전지역을 정찰해 표적을 위치를 알려주는 전방 공중통제기로서의 임무와 함께 초음속 전투기가 하지 못하는 적 소형무인기 격추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8전비는 공격형 무인기를 운용하며 유인기와 무인기를 함께 활용하는 현대전에 최적화된 전투비행단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활주로를 이동하는 FA-50



이륙하는 FA-50



FA-50 편대비행

실사격 중인 FA-50





활주로를 이동하는 KA-1



이륙하는 KA-1



실사격 중인 KA-1

8전비는 이러한 항공전력들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항공작전을 총괄하는 항공작전전대, 항공기와 관련 장비를 정비하는 항공정비전대, 기지방호작전을 담당하는 기지방호전대, 그리고 후방지원을 담당하는 작전지원전대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8전비의 부대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항공작전태세를 완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과 함께하는 부대’로서 지역민과 소통하고 지역발전에 힘쓰기 위해 농번기 일손 돕기,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 기지 인근 마을회관 위문활동 등 각종 대민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군상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항공작전유지를 위한 야간기지방호훈련



FA-50 항공기에 GBU-38 무장을 장착하는 8전비 정비요원



지역민을 위해 헌혈 활동을 시행하는 8전비 장병들



공중 기동을 펼치는 FA-50

제8전투비행단의 미래

8전비는 국산 항공기를 주로 운용하며 중·북부 영공방위는 물론 대한민국 방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국산 항공기 운용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며 FA-50, KA-1의 우수성을 입증해 나가고 있다. ‘우리가 만든 항공기로 우리의 하늘을 지킨다’는 최용덕이 가졌던 당시로는 막연했던 구상이 70여 년의 시간을 지나 8전비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8전비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현대전장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전력인 KA-1과 공격형 무인기를 운용하며 전통적인 전장 환경은 물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전장에 발맞춰 성장하고 있다. ‘우리의 항공기로 우리의 하늘을 지킨다’는 대한민국 공군의 오랜 염원이자 구상이 실현되고 있는 이곳 8전비는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기지로써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다. [☐](#)

이달의 공군史

우리 공군, 처음으로 타국의 하늘을 날다!

(1957.12.15.)

대한민국 공군이 해외에서 진행되는 연합훈련에 참여하거나 실제로 여러 가지 임무를 부여받아 작전을 수행하는 일은 더 이상 낯선 장면이 아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미국 공군이 주도하는 레드플래그 훈련에는 단골손님이 되었고, 2021년의 미라클 작전이나 2023년의 프라미스 작전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사건으로 기억되는 해외 공중작전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렇다면 우리 공군이 국경을 넘어 해외에서 비행을 시작한 것은 과연 언제일까. 1957년이 저물어가던 11월 28일 『경향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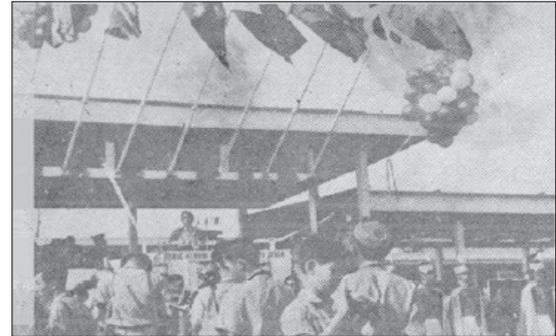
“우리 공군 외국에서 첫 비행, 내(來) 15일 비국(比國) 공군의 날 행사 참가”

기사에서는 필리핀이 자국 공군의 날을 맞아 개최하는 에어쇼 행사에 우리 공군을 초청했고, 우리 공군은 12월 15일 열릴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곧 출발할 예정이라는 점을 전하고 있다. 매우 짧은 이 기사는 “우리 공군의 ‘젯트’기가 처음으로 외국 상공”을 비행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953년 7월 27일부터 1957년 12월 31일까지 공군의 역사를 정리한 『공군사』 제2집에도 이 내용을 ‘군·내외 주요사건 일지’의 마지막 항목으로 기록하면서 “젯트기 최초로 3,000마일 원거리 비행기록 수립”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군이 창설되고 6·25전쟁을 겪었던 그 짧은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 비행은 꽤나 감동적인 장면으로 다가온다. 전투기 한 대 없이 전쟁을 맞아 급히 미군으로부터 인수한 F-51 ‘머스탱’을 타고, 그 야말로 연습이 곧 출격이었고 실전이 전투경험을 쌓아왔던 시기를 어렵게 지나온 것이 채 10년이 안 되었던 시점이었다. 타국에서 열리는 국제 항공 행사에서, 그것도 제트기를 타고 비행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

공군이 발행하는 공식 기관지인 『코메트』는 이날의 장면을 「마닐라 상공에 태극기 날리다」라는 제목 아래 여러 장의 사진으로 전하고 있다. 행사 본부석 상단에 주요 참가국들의 국기와 함께 휘날리는 태극기, 행사장에서 다른 국가 대표들과 환담을 나누는



마닐라에 휘날리는 우리 태극기(『코메트』 제32호 중, 1958)



마닐라 상공을 나는 우리 2기 편대(『코메트』 제32호 중, 1958)



ROK AIR FORCE가 선명하게 새겨진 항공기와 인파 (『코메트』 제32호 중, 1958)



대한민국의 첫 해외비행을 보도한 1957년 11월 28일 『경향신문』

* 비국(比國): 필리핀

우리 공군의 대표단, 전시되어 있는 우리 공군 항공기를 둘러싼 인파들 등의 사진을 보면 타국의 공군의 날이라는 점이 무색하게도 우리 공군의 들뜬 마음과 뿌듯함이 전해지는 듯하다.

타국의 하늘을 비행한다는 것이 우리 공군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자부심과 보람을 가져다주리라 짐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1957년 12월 15일 마닐라 상공을 비행한 지 50여 년이 지나 우리 공군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2012년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영국의 하늘을 멋지게 수놓았던 것.

런던 올림픽이 있었던 2012년 여름, 블랙이글스는 영국에서 잇달아 열린 에어쇼에 참가하여 그 기량을 세계에 선보였다. 그 출발은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된 와딩턴 에어쇼(Waddington International Air Show)였고, 이는 블랙이글스라는 이름으로 처음 해외에서 진행한 비행으로 알려져 있다. 블랙이글스는 여기서 '최고의 에어쇼상'을 수상하며 국제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이어 7월 7일부터 8일까지는 영국 왕실이 주관하는 RIAT(Royal International Air Tattoo)

에어쇼에 참가했다. 이 행사에서는 재영교포들, 그리고 영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특별히 초청하여 감동을 자아냈다. 블랙이글스의 멋진 비행은 고국을 떠나 타지생활을 하는 교민들에게는 큰 위안을 주는 한편,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작은 나라가 어엿하게 성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참전용사들에게는 가슴 벅찬 선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블랙이글스의 영국 마지막 일정은 세계 3대 에어쇼로 알려진 판보로 국제 에어쇼(Farnborough International Airshow)였다. 당시 판보로 에어쇼에서는 영국항공기를 제외하고는 팀 단위의 공연을 허가하지 않아 블랙이글스는 1대만 비행하며 단기 기동을 선보였다. 아쉬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블랙이글스의 뛰어난 조종기량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이미 우리 공군의 활동반경은 우리 영공을 넘어서 있다. 앞으로 전력이 더욱 첨단화되고 증강되면서 그 반경은 더욱더 확장될 것이다. 이는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우리 공군이 가진 힘과 기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누군가는 하늘을 향한 꿈을 품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2012년 세계 3대 에어쇼인 판보로(Farnborough) 에어쇼에서 단기기동을 펼친 블랙이글스



2024년 세계 3대 에어쇼이자 아시아 최대 에어쇼인 싱가포르 에어쇼에 참가한 블랙이글스



영국 왕실이 주관하는 RIAT(Royal International Air Tattoo)에 참가한 블랙이글스

역사 속 공군 이야기



공군의 독립 프로젝트, 공군사관학교의 창설

해방 후 공군을 창설하려는 노력에서 주된 과제는 인적 자원의 확보였다. 1945년 광복 직후 ‘항공 건설’을 천명하며 조직되었던 조선항공협회는 ‘새로운 한국의 항공 건설은 막대한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항공경력자를 파악하면서 동시에 한국항공학교의 창립을 추진했다. 김정렬이 회고에서 공군의 창설을 위한 주요 노력으로 내세웠던 활동도 항공경력자를 물색하고 정리했던 작업이다. 노중신이 실무를 맡았던 그 작업의 결과 500여 명의 항공경력자가 파악되었다.

500여 명에는 조종뿐만 아니라 정비, 통신 등 항공과 관련한 제반 경력자도 포함되어있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규모로는 하나의 군을 구축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다. 당시 건군에서 절대적 권한을 행사했던 미국은 항공부대의 창설 요구에 대한 거부 이유 중 하나로 빈약한 항공경력자의 수를 들었다.

따라서 공군의 창설을 위해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었던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에 1947년 10월 말 한국항공건설협회는 ‘국방력의 주간(主幹)이 되고 아울러 조국 항공의 처녀지를 개척하고자’ 대전항공학교의 창설을 추진하였다. 대전항공학교는 한국항공건설협회의 조직을 통해 군산, 부산 등 전국적으로 학생 모집에 나섰다.



『항공조선』 창간호에 실린 한국항공학교 창립 및 학생 모집 광고



대전항공학교 창설을 다룬 「현대일보」 1947년 10월 23일 2면

이 글은 2016년 육군박물관이 발간한 『학예지』 제23집에 게재된 논문 「공군사관학교 창설의 기반과 과정」을 바탕으로 논문을 재구성하면서 보완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성명	나이	이력
최용덕	50	중국 공군중좌, 중국 육군대학 졸업
이영무	44	중국 항공중좌, 폭격비행대장
장덕창	45	1등 비행사, 1920년 비행 개시, 일본항공수송주식회사 조종사, 일본 민간항공 최고자(最古者)
박범집	31	일본 육군항공소좌, 일본 육사육항기술학교 졸업
김성태	34	만주 항공대위, 폭격기 조종사
이근석	31	일본 구마가야(雄谷)육군비행학교 졸업, 일본 아케노(明夜)육군비행학교 졸업, 전투기 조종사, 소년비행병 2기생
김신	27	중국 공군장교, 미국 육군비행학교 졸업
김정렬	31	일본 육군항공대위, 일본 육군항공사관학교 및 아케노비행학교 갑종학생 졸업, 전투기 조종사
김창규	28	일본 육군항공대위, 일본 육군항공사관학교 졸업

대전항공학교의 교관진

대전항공학교의 교관진에는 공군 창설 주역 7인 가운데 김영환을 제외한 최용덕과 이영무, 장덕창, 박범집, 김정렬, 이근석의 6명이 있었다. 그리고 공군 창설 주역 7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후 공군에서 참모총장 등 장성급 장교에 올랐던 김성태, 김신, 김창규도 교관진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대전항공학교는 공군의 창설과 직결된 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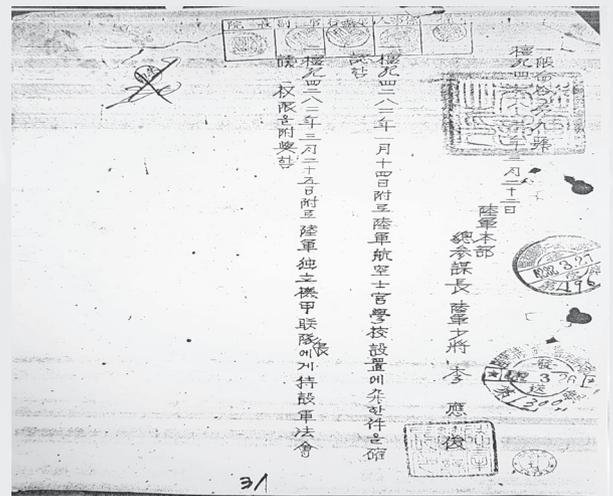
대전항공학교는 약 100명의 정원에 약 1년 2개월의 교육 기간을 계획했다. 학생들도 무작정 모집하기보다 항공 관련 전문 분야 및 국어, 수학, 영어, 기초과학 등의 과목을 시험해 선발하고자 했다. 대동청년단의 한 청년은 혈서로 지원서를 내기도 했다.

다만 대전항공학교는 실제 개교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항공부대의 창설이 가시화되면서 관련 인물들도 부대 창설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애초에 대전항공학교 자체가 미군정으로 하여금 한국이 항공부대를 운영할 인적 역량을 갖췄다는 점을 피력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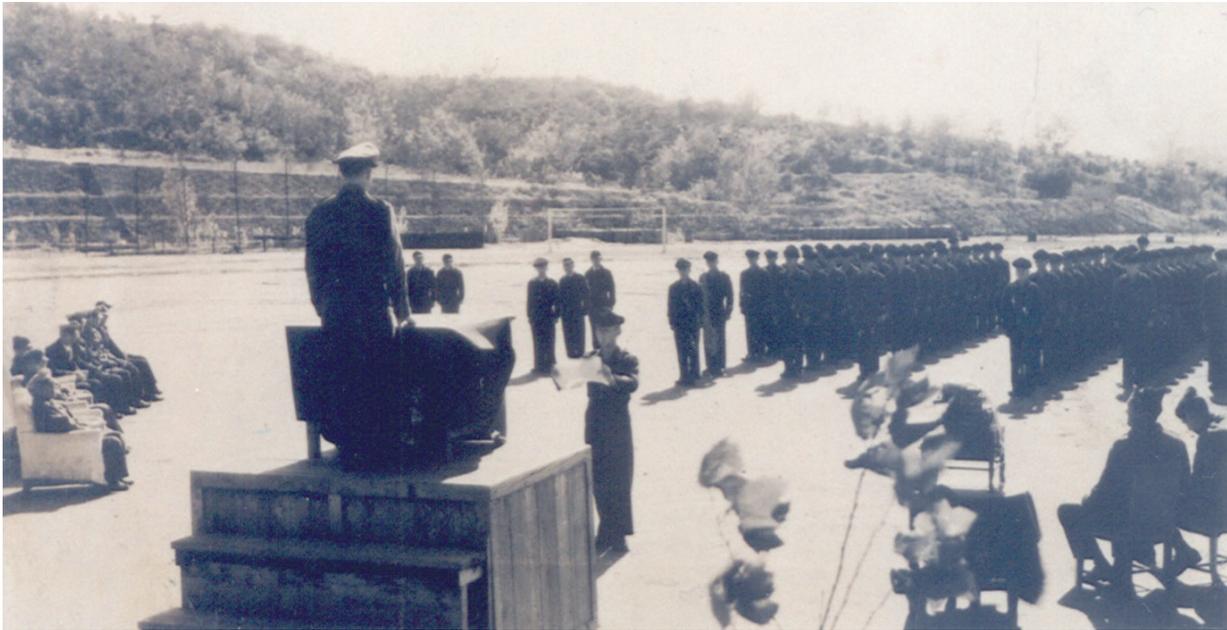
1948년 항공부대가 창설되고, 국군조직법에 공군의 독립이 유보 조항으로 삽입되면서 인적 자원의 확보 노력은 항공병의 지속적인 모집과 함께 별도의 사관학교를 설립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국군조직법의 제정 당시 각 군을 통솔하는 자리였던 참모총장 채병덕은 항공 관련 인력의 규모가 500여 명 정도이고, 조종사도 10여 명에 불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인적 자원을 확보해야 공군의 독립을 논의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그렇기에 충분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경우 그 논리를 쉽게 격파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인적 자원의 신속한 확보 방식으로는 과거 일본군이 그랬던 것처럼 사관학교보다 단기 교육으로 구성된 비행학교 같은 양성소가 적합했다. 게다가 초기 항공부대의 시설과 장비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차라리 장교양성소의 설치라면 승인해줄 수 있다는 채병덕의 의견이 보다 현실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령부는 별도의 사관학교 설치를 지속 추진했고, 결국 1949년 1월 14일자로 김포기지에서 육군항공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육군항공사관학교 창설 명령



입교선서를 하고 있는 1기 입교생

육군항공사관학교는 분명 공군의 창설을 위한 불굴의 노력에 따른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업적을 상찬하기에 앞서 어떠한 이유로 항공사령부가 장교양성소 같은 용이한 방식 대신 사관학교의 별도 설치를 추진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 인물들의 경험은 별도의 사관학교 설치를 추진하는 기반이 되었다. 1930년대 중국의 국민정부는 ‘항공구국’을 내세우면서 공군의 독립을 추진했다. 항저우(杭州)에 신설했던 중앙항공학교는 신규 인력뿐만 아니라 기성 장교들의 재교육도 담당하고, 교리 개발을 수행하는 등 공군만의 역량을 갖추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했다. 이때 최용덕은 소수 정예로 선발된 교관으로서 교육과 교리 개발에 기여했다. 한편 일본은 1937년 육군사관학교의 분교로 육군항공사관학교를 창설했다. 이 조치는 육군 장교단 내 화합을 명분으로 동일한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항공의 전문성을 내세워 돌파한 결과였다. 박범집과 김정렬, 김창규 등은 이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 항공장교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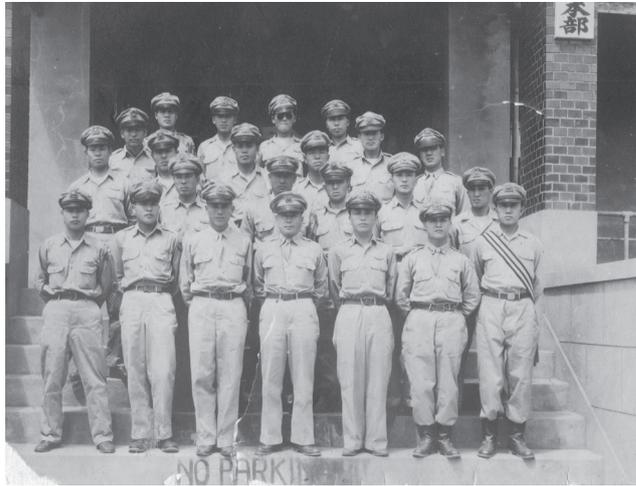
중국과 일본의 사례는 곧 하나의 군이 독자적인 존재로 정립하기 위한 개조 과정에 있어서 사관학교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사관학교는 군을 이끄는 중견급 이상의 장교가 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

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관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곧 지휘부와 참모진을 기존의 군과 구별되는 성격으로 구성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므로 육군항공사관학교의 설치의 항공력을 독립적인 개념에서 운용하려는 노력과 직결되어 있었다.

1949년 10월 1일, 공군이 육군으로부터 독립함과 동시에 육군항공사관학교도 공군사관학교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때 명칭 외에 특별히 바뀐 부분은 없었다. 이는 육군항공사관학교 자체가 독립적인 상태를 기도한 결과물이었기 때문이다.



제1기 사관생도의 육군항공사관학교 입교



육군항공사관학교 창설 단체 사진



1949년 공군사관학교 정문

공군의 창군 때 총참모장 대리인 보임된 김정렬은 취임사를 통해 “공군 독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빈약한 국가재정 범위 내에서 최소병력으로 구성하여 소기의 공군을 만들어 국가수호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소병력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공군사관학교는 필수적인 기관으로 여겨져 세워졌다. 한편으로 이러한 여건은 곧 공군사관학교로 하여금 사관생도 양성 외의 역할까지 담당하도록 했다. 공군사관학교의 첫 교육은 육군항공사관학교 시절인 1949년 3월 15일, 제1차 소집장교후보생을 대상으로 개시되었다. 이어서 정규 사관생도의 모집이 시작되었고, 선발된 97명은 같은 해 6월 10일,

제1기 사관생도로서 입교했다.

공군사관학교는 1972년까지 제1차 소집장교후보생의 교육이 시작되었던 3월 15일을 개교기념일로 삼았다. 이날은 첫 교육의 개시일이라는 점과 함께 초창기 공군사관학교가 지녔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다만 점차 공군이 발전하면서 조직이 분화됨에 따라 공군사관학교의 역할은 사관생도 양성으로 정해졌고, 개교기념일 역시 사관생도의 입교일인 6월 10일로 바뀌었다. 그렇지만 공군사관학교가 사관생도 양성을 넘어선 공군의 창군 차원에서 세워졌으며, 이것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추진 노력을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한다. [\[1\]](#)



공군 독립 기념 공군사관학교 단체 사진



대한민국 공군의 항공통제기, E-737 피스 아이(Peace Eye)

대한민국 공군 E-737 도입 역사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는 E-737은 E-X 사업을 통해 도입된 항공기이다. E-737은 E-X 사업에서 EL/W-2085 레이더를 탑재한 이스라엘의 엘타 G-550 항공통제기와 경쟁을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방위사업청은 2006년 11월, 보잉사와 E-737 도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E-737 항공기를 도입했다. 대한민국 공군은 E-737을 운용할 부대를 항공기 도입 전인 2010년 10월에 창설했고, 항공기를 전력화시켰다. E-737에 명명한 '피스 아이(Peace Eye)'라는 애칭은 국민 공모를 통해 2008년에 붙여진 이름이다.

항공통제기란?

항공통제기는 공중을 감시하는 레이더를 항공기에 장착하여 항공기 통제, 조기경보, 전장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중지휘통제 체계를 의미한다. 하늘에서 위협 표적을 미리 발견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투기를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의 지휘소' 또는 '하늘의 방공통제소'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공중 표적에 대한 감시와 식별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항공기를 '조기경보기(AEW : Airborne Early Warning)'라 한다. 반면 요격 관제와 전장 관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통제기라 한다. 조기경보통제



대한민국 공군 E-737 피스 아이(출처: Boe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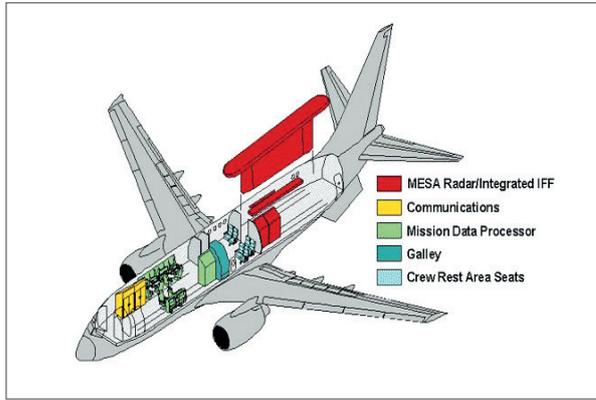


E-737 피스 아이 개념도

기는 상기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의미하고, 영문 약자로는 AEW&C(Airborne Early Warning & Control)로 표기한다.

에이웍스(AWACS)?

에이웍스 또는 AWACS(Airborne Warning & Control System)라는 이름은 E-3, E-767 등 보잉사의 특정 기종에 대한 상업적 고유명칭이다. 따라서 조기경보 및 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를 포괄하여 부를 때는 AEW&C라 하고, E-3, E-767 특정 기종을 의미할 때는 에이웍스(AWACS)라고 한다.



보잉 737 AEW&C 구역별 기능

항공통제기의 중요성

적국의 항공기를 탐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군은 다수의 지상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그린파인 레이더, 해군의 이지스함 등의 첨단 전력은 적의 탄도탄을 탐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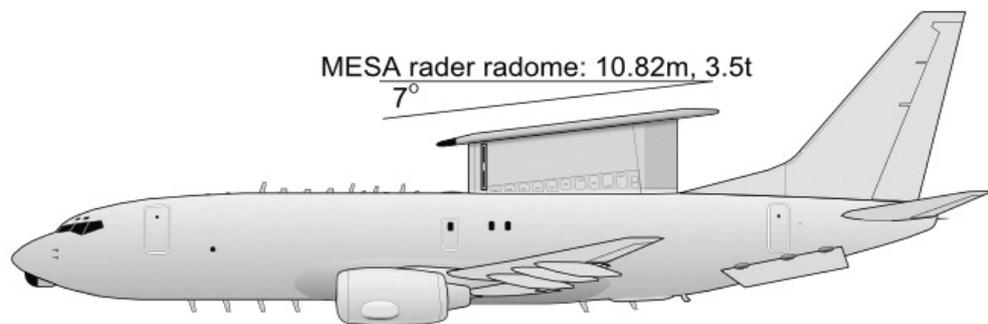
기 위한 주요 전력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상 또는 해상 감시자산은 지구 곡률(曲率)과 지형의 영향으로 인해 적 탄도탄 발사 직후 또는 수십~수백m로 저고도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의 탐지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항공통제기는 고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구 곡률과 지형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항공통제기는 각국 공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감시 정찰자산으로 인정받아 널리 운용되고 있다.

E-737 기체의 기술적 특징과 장점

E-737 항공통제기는 B737-700 IGW(Increased Gross Weight) 여객기 기체에 전자주사방식의 첨단 레이더를 장착한 항공기이다. 따라서 기체의 기본성능은 상용 B737-700 기종과 유사하다.

B737-700 여객기의 좌석 수는 좌석 사양에 따라 126석에서 149석까지 구성할 수 있고, 순항 속도는 마하 0.78에, 고도는 12,500m(41,000ft), 항속거리는 5,570km(3,010nm)까지 가능하며, 약 8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기체를 사용하는 E-737 항공기의 기체 성능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E-737은 상용기의 베스트셀러인 B737NG(Next Generation) 기체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여러 장점이 있다. 우선 가장 큰 장점은 이미 대량 생산된 B737 기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낮은 비용으로 E-737 군수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검증된 기체를 사



E-737 측면도

용하는 만큼 높은 가동률과 글로벌한 상호운용성을 갖출 수 있다는 것도 E-737의 장점이 된다.

다기능전자식위상배열 레이더

E-737 능력의 핵심은 동체 상단에 위치한 다기능전자식 위상배열(MESA : Multirol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레이더이다.

다기능전자식위상배열 레이더는 원반 접시 형태의 기존 AWACS 레이더에 비해 긴 막대와 같은 바(bar) 형상으로, 크기와 중량이 절반에 가깝고, 저전력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

L-밴드 대역(1~2GHz) 주파수의 지향성 빔을 사용하는 다기능전자식위상배열 레이더는 안테나가 기계적으로 회전하는 기존 항공통제기 레이더와 달리 안테나가 고정되어 있어 360도 전방위 탐색과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감시 능력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레이더이다. 보다 구체적인 운용 방법으로는 평상시 360도 전 방위를 감시하는 ‘일반 모드’와 특정 구역의 포착범위를 확대하는 ‘강조 모드’, 그리고 30도 정도로 범위를 좁혀 특정 구역을 보다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집중 모드’ 총 3가지 모드가 있다.

다기능전자식위상배열 레이더는 전자적으로 레이더 빔 방향을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어 기계적으로 회전하는

레이더보다 표적의 신속한 탐지가 가능하다. 탑햇(TOP Hat)으로도 불리는 E-737 다기능전자식위상배열 레이더는 항공기, 탄도미사일 등의 공중 표적뿐만 아니라 해상 표적에 대해서도 동시, 상시 감시가 가능하다. 고고도에서 3,0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고, 360도 탐지 반경은 약 370km에 이른다. 더불어, 집중 감시 모드에서는 최대 740km 떨어진 표적까지 탐지할 수 있어 3축 체계 핵심 자산이 되고 있다.



상부에서 본 E-737 피스 아이



적외선 섬광탄을 투발하고 있는 E-737

다기능 임무 콘솔

항공통제기의 작전실 내부에는 다기능전자식위상배열 레이더 등이 수집한 항적 정보를 관리하는 항공통제사용 다기능 임무 콘솔이 위치하고 있다. 항공통제사는 임무 콘솔에 앉아 각종 센서 및 데이터링크로 수집된 정보를 탐지, 분석, 식별, 통제한다. 피스 아이는 총 10개의 임무 콘솔을 배치하고 있어, 10개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E-737은 임무 콘솔, 다기능전자식위상배열 레이더 뿐만아니라 Link-11, Link-16 데이터링크와 다양한 통신장비까지 갖추고 있어 공중에서 효과적인 지휘 통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E-737과 E-7의 차이점은?

B737 기반의 항공통제기를 미군과 보잉은 E-7 AEW&C로 명명했다. 따라서 대한민국 공군이 명명한 E-737 피스 아이는 대한민국 공군에 도입된 B737 기반의 항공통제기를 지칭할 때 사용된다.

B737 기반의 항공통제기를 가장 처음 운용한 국가는 호주이다. 호주 공군은 1999년에 ‘웨지 테일(Wedge Tail)’이라는 이름으로 E-7A 체계를 선정하고, 2009년부터 6대를 운용하고 있다. 호주 공군 E-7A는 2014년부터 이라크로 파견되어 실전에서 성공적인 항공통제 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 여담으로 웨지 테일은 호주에서 서식하는 독수리 이름으로, 뛰어난 시력을 갖고 있다.

두 번째로 B737 기반 항공통제기를 운용한 국가는 튀르키예이다. 튀르키예는 2000년에 제작사로 보잉을 선정하고, 2002년에 계약을 체결하여 ‘피스 이글’이라는 이름으로 2014년부터 4대를 운용하고 있다. 튀르키예의 E-7T 피스 이글은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 지원을 위해 사용되기도 했다.

세 번째 E-7 도입 국가는 영국이 될 예정이다. 영국 공군은 기존에 운용하던 E-3 AWACS 개량을 포기하고 E-7 5대 도입을 2019년에 결정했다. 다만 도입 수량은 2021년에 3대로 축소하였다.

E-737의 역할

피스 아이가 수행하는 역할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조기경보 및 탐지로, 공중에서 비행체를 탐지하고 추적하며 조기경보를 제공하여 적의 공중 작전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역할은 항공기 통제로, 공중교통 관제와 항공기 통제 임무를 수행하여 공중에서 다양한 항공기를 관리하고 안전한 비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전장 관리 역할로, 전투 상황에서 전장 정보를 제공하여 지휘관이 군사 작전에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튀르키예 공군의 E-7T 피스 이글



호주 공군의 E-7A 웨지 테일

E-737 성능개량과 항공통제기 추가 획득

방위사업청은 한미 연합작전 및 합동작전 시 E-737 항공통제기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E-737 피아식별장비(IFF) 및 Link-16 성능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0년 10월, E-737 피아식별장비(IFF) 및 Link-16 성능개량사업 기종결정(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이러한 E-737 성능개량 사업과 별개로 방위사업청은 신규 항공통제기 획득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도입된 항공기의 가동률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항공통제



KF-16과 편대비행 중인 E-737

기의 전력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신규 항공기 획득을 위한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기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F-15K와 편대비행 중인 E-737

E-737의 미래

2022년 4월, 美 공군은 노후화된 보잉 E-3 AWACS의 대체 항공기로 E-7을 결정하였다. 美 공군의 선택에 따라 E-7은 2027년부터 22대가 美 공군에 배치될 예정이다.



美 공군 E-7A 개념도

E-7 계열은 호주, 터키, 한국 등에서 소수 운용되는 수준이었지만 美 공군의 차기 항공통제기로 선정됨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게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운용하는 E-3 14대까지 E-7로 대체될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E-7 생산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 해가 저무는 12월 연말에도 하늘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E-737 피스 아이는 이제 서방측의 대표적인 항공통제기로 거듭나 조국의 영광을 방위하는 미래 핵심전력으로 더욱 발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연말정산 살펴보기

여러분들은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바로 연말정산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연봉은 같지만 세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월간 『공군』 편집실에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풍성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2024년 연말정산을 미리 살펴보는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매달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과정으로, 소득과 공제액을 다시 검토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연말정산은 필요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반대로 부족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11월 15일

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보기는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금액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11월 이후의 지출 및 급여의 변동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가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혜로운 연말정산법

연말정산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꿀팁들이 필요합니다. 우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조정해 소득공제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공제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올해부터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를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니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올해 새롭게 바뀌는 것들

2024년 연말정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의 공제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인상되었으며, 전통시장 공제율 또한 40%에서 80%로 확대됩니다. 또한, 결혼 시 세액공제 항목이 신설될 예정으로, 연말까지 적용 여부를 확인해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니 공제 항목별로 사전 검토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만,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 상향은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반영되지 않음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한 세금 신고 절차가 아니라, 한 해 동안의 소비와 지출을 돌아보고 필요한 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국세청이 11월 15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2024년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미리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 본 기사는 국세청 보도자료 ‘연봉은 같은데 세금은 다르네? 13월의 월급 미리 챙겨보자!’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논리와 신체가 만들어내는 회화적 선율 작가 이건용

그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종이나 캔버스에 연필 혹은 붓을 잡고 ‘정면’에서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그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만이 정당일까요? 이번 「공군인이 들려주는 미술 이야기」 12월 호에서는 ‘논리’를 기반으로 미술의 본질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며, 정형화되고 일반화된 그리기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신체’에 집중한 이건용 작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건용 작가는 학창시절의 논리학 수업 등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철학을 접하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비트겐슈타인, 메를로-퐁티 등 철학자들에 대한 그의 관심은 이후 그의 예술에 있어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번 달에는 그가 탐구한 ‘신체’의 개념을 바탕으로 그의 대표적인 연작인 ‘Bodyscape’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이건용 작가의 모습(76-9-2021
앞에서). ©GALLERY HYUNDAI,
갤러리현대 제공

‘Bodyscape’ 연작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신체’의 개념은 1973년 작가가 참여한 파리비엔날레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비엔날레 현장을 보며 경험한 전위적인 예술들을 통해 지금까지의 작업을 성찰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 도약은 우리 인간의 신체를 예술의 매개로 활용하는 행위 미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파리에서 귀국한 이후 작가는 「실내 측정」, 「테이프 자르기」, 「다섯 걸음」 등 퍼포먼스 연작을 공개합니다. 각각의 퍼포먼스는 작가가 설계한 ‘논리’를 기반으로 하며 특정 퍼포먼스는 반복성을 띠는 특징을 가지는데, 작가는 이를 이벤트-로지컬(event-logical)이라고 명명합니다. 그의 이벤트-로지컬은 60년대 퍼포먼스의 한 유형이었던 ‘해프닝(happening)’과 달리 논리성이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한 도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작가에게 신체와 논리는 과연 무엇이였을까요? 그에게 논리는 세계를 그리는 것에 있어 하나의 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논리성은 그에게 세계와 그리는 것의 매개가 되는 신체와 함께 작품을 이끄는 두 개의 축이 됩니다. 그는 본인의 신체를 통해 세계를 그리고자 하였고, 그리는 과정 속에는 항상 논리가 함께했습니다. 신체의 움직임을 따라 그어지는 선들의 선율은 감정의 의미와 표현이 아닌, 제약된 신체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사건으로 정의됩니다.

‘Bodyscape’ 연작은 앞서 언급한 그의 논리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작업들입니다. 나아가 ‘그리는’ 행위에 대해 물음을 던져 미술인으로서 그린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Bodyscape’ 연작의 핵심은 신체를 사용한다는 점도 있지만, 신체 드로잉 과정에서 화면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도 집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의 작업 과정 속에서 화면은 인물화나 풍경화처럼 대상을 묘사하는 공간이라기 보단 행위를 하는 하나의 ‘장소’로서 기능합니다. 이는 ‘그린다’라는 논점을 ‘신체의 표현’으로 재설정하는 그의 의도와 조화를 이룹니다. 나아가 작가는 화가와 화면(캔버스)이 마주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함으로써 비로소 신체가 지각자이자 표현자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앞서 말한 화가와 화면이 마주하는 전통적인 방식이란 일반적으로 작가의 의식인 눈이 그리는 손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회화 작업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일반화된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작업 과정 속 시각을 배제했다는 점도 다른 예술가와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odyscape’ 연작을 통해 작가는 본인 신체의 한계와 신체의 가동 범위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본인의 키와 양팔, 다리의 길이처럼 신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신체가 움직일 수 있는 만큼 화면에 선을 반복하여 긁습니다.

연작인 76-1부터 9까지의 작업들은 각기 다르게 신체를 제한하여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중 76-1, 76-2, 76-3, 76-4, 76-9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작품 제목 속 숫자의 의미는 앞에서부터 연작 최초 공개 연도, 9개의 방법, 제작 연도를 뜻합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화면과 그리는 사람의 눈과의 조응 관계 때문에

행위자의 시선 앞에 화면이 놓이게 되며 눈(지각)과 손(행위)이 동시적으로 작용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사실상 전 미술사를 통하여 모름지기 손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형자와 조형물과의 관계는 눈으로 보면서

조형 행위를 한다는 것이 한 관례이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회화 작업상의

인식관계를 포기함으로써 신체가 지각자요 표현자라는 역설적인 회화 인식 관계를 수립할 수 있었다.

- 1985.10.23.~29. 윤갤러리(Yoon Gallery) 개인전에서

나의 화면 속의 선은 밖에서 들어간 것이지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구성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내가 평면상에 선을 긁거나 임의의 흔적을

만드는 행위는 사용된 매체인

연필·물감·기타 신체 행위가 어떤 상태로

화면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그어지거나

긁히거나 흘러내리거나 함으로써,

화면과 이것들의 상호 간에 작용한 만큼

드러나는 현상으로서 발전될 것이다.

- 이진용 작업노트 中, 갤러리현대 Bodyscape, 2021, 124p -

76-1 (화면의 뒤에서)

76-1은 작가 본인의 키에 맞춘 화면의 뒤에 서서 보지 않고 앞으로 손을 뻗어 반복적으로 긋는 작업을 지속합니다. 일차적으로 작업이 완료되면, 그어진 부분을 뒤로 넘겨 높이가 낮아진 상태에서 앞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최종적으로 제작된 모습은 높이 차이에 따른 신체의 표현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Bodyscape 76-1-2012, 2012, canvas on acrylic, 73 x 53cm, ©국립군산대학교미술관, 국립군산대학교미술관 제공



Bodyscape 76-1-2021, 2021, canvas on acrylic, 171 x 151cm, ©GALLERY HYUNDAI, 갤러리현대 제공



Bodyscape 76-1-2021 제작 모습, ©GALLERY HYUNDAI, 갤러리현대 제공

76-2 (화면을 등지고)

76-2는 화면을 보지 않고 등지고 서서 신체의 주변으로 선을 그으며 결과적으로 작가의 신체 부분만을 여백으로 남기는 작업입니다. 신체를 고정하고 그은 선들은 마치 십자가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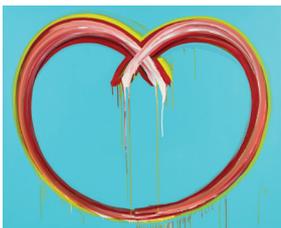
Bodyscape, 76-2-2007, 2007, canvas on acrylic, 181.1 x 227.3cm, ©국립군산대학교미술관, 국립군산대학교미술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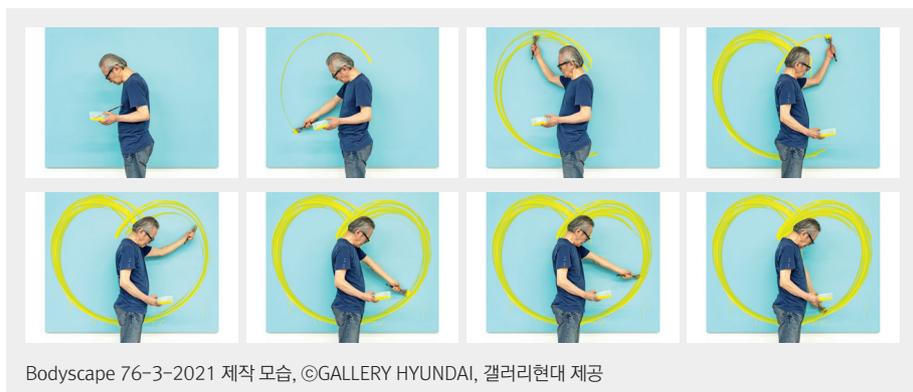
Bodyscape 76-2-2021, 2021, canvas on acrylic, 227 x 182cm, ©GALLERY HYUNDAI, 갤러리현대 제공

76-3 (화면을 옆에 두고)

76-3은 화면을 기준으로 옆을 보고 둥근 선을 긋는 작업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가며 양팔이 가동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낸 것이 핵심인데요, 그어진 둥근 선의 조합이 작품을 보는 관람객들로부터 하여금 하트를 연상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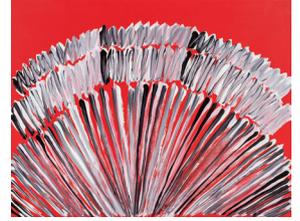
Bodyscape 76-3-2021, 2021, canvas on acrylic, 130.3 x 162.2cm, ©GALLERY HYUNDAI, 갤러리현대 제공



Bodyscape 76-3-2021 제작 모습, ©GALLERY HYUNDAI, 갤러리현대 제공

76-4 (손목과 팔꿈치를 부목으로 고정하고 이를 순서대로 풀면서)

76-4는 신체 중에서도 팔의 통제가 만들어내는 선에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손목과 팔꿈치 모두를 부목으로 고정하고 오로지 손끝의 감각으로 캔버스에 선을 기록합니다. 이후 손목 부분의 부목을 풀고 보다 자유로워진 손목으로 선을 기록하며, 마지막으로 팔꿈치 부분의 부목을 풀어 더욱 과감한 선을 표현합니다. 작가는 이 작업을 통해 팔을 의도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팔을 쓰는 의미 그 자체를 강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Bodyscape 76-4-2021, 2021, canvas on acrylic, 91 x 116.8cm, ©GALLERY HYUNDAI, 갤러리현대 제공



Bodyscape 76-4-2021 제작 모습, ©GALLERY HYUNDAI, 갤러리현대 제공



76-9 (두 팔과 다리를 위아래로 왕복하며)

76-9는 마치 날갯짓하듯 양팔과 다리를 활짝 벌렸다가 다시 오므리는 것을 반복하여 선을 긋는 작업입니다. 그어진 선들은 날개 형상을 띄어 마치 천사의 날개를 연상시키고, 그의 신체와 세계가 소통하는 날갯짓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Bodyscape 76-9-2021, 2021, canvas on acrylic, 259.1 x 193.9cm, ©GALLERY HYUNDAI, 갤러리현대 제공

그의 작업은 겉으로 보기에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의 깊이는 쉽게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작가에게 그리기란 철학적 사유이자 깊은 고뇌의 결과물인 것처럼 그가 그만의 예술을 펼칠 수 있었던 그 과정과 사유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가에게 예술의 기회는 기존에 있는 울타리에 있지 않음에서 기인합니다. 그 울타리 밖에 있었기 때문에 작가는 새로운 예술을 개척하고 시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존의 '그린다'라는 것의 정의에서 벗어나 작가만의 정의를 구축한 것과 같이, 예술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사유하는 그것이 바로 정답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대미술을 난해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본질을 깨닫는 순간, 현대미술, 나아가 미술을 진정으로 향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예술을 다루기에는 짧은 글이지만, 이번 기고를 통해 많은 이들이 이진용 작가의 예술을 접하고 현대미술에 발을 디는 출발점이 되길 소망합니다. [▶](#)

화판에다 긋는 행위도 일종의 목적의 행위가 아니겠냐고 묻는 이도 있다. 화가가 이미지를 그리지 않고 단순히 선을 긋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화가의 행위이므로 일반인들은 그것까지도 그리는 행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긋는다는 행위는 그린다는 행위 이전의 것이며, 그렇게 긋는다는 행위가 시작되면서 끝이라면 그것은 분명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 행위인 것이다.

- 1975년 『공간』 10, 11월호 특집에 실린 좌담회 中 -



병장 정욱헌

前 Boutique Monaco Museum Curator, 前 PICKSGOOD Gallery Exhibition Manager, 前 Artslinker Curator. 입대 후 공군 본부 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에서 그래픽 디자인병으로 복무하고 있다. 대표 기획 전시로는 '램브란트-내면을 에칭하다 展, WHITE FUTURE-윤형재 展, Wave In Blue Island 展, 당신은 지금 어떻게 대화하고 있나요? 展' 등이 있다.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북동부에 있는 7,500여 개의 섬을 가진 도서 국가이다. 인구는 1억 천 6백만 명으로 세계 13위이며, 연 국민개인소득은 3,950달러 수준이다. 코로나 펜데믹 직전 한인 교민은 약 85,000명에 달했으며, 이는 170,000명이 거주했던 베트남에 이어 동남아시아에서 2번째로 많은 수치였다. 필리핀은 143,100명(육군 101,000, 해군 24,500, 공군 17,600)의 병력과 준군사 부대 12,300명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은 6·25전쟁 당시 7,500여 명의 전투병력을 대한민국에 파병하였으며 이 중 116명이 전사하였다.

최초 항공기 날갯짓에 열광한 마닐라 시민

마닐라 국제공항 제3터미널을 벗어나면 시내로 연결되는 공항도로 입구에 필리핀 공군 항공우주박물관이 있다. 1974년 5월 2일, ‘마르크스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했다가 2007년 6월에 공군박물관으로 재탄생했다. 실내전시실은 역사, 과학, 예술 구역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자료들이 진열되어 있다. 역사전시실에는 무기·군복과 디오라마가 펼쳐져 있으며, 필리핀의 항공기 도입과정도 보여준다. 야외의 하늘공원 전시장에는 필리핀 공군이 운용했던 다양한 항공기들이 자리 잡고 있다. 과거 필리핀의 과학기술 수준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앞서있었다. 우리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겼던 시기인 1911년, 마닐라 리잘 공원 위를 필리핀 최초의 항공기가 날았다. 운집한 시민들은 열광했고, 변화하는 세상에 충격을 받았다. 또한, 1930년대 필리핀 인구 중 27%가 영어를 사용했고, 징병제를 시행하면서 10만 명의 병력을 유지했다. 1960·70년대 필리핀은 동남아 선두국가로 주목을 받았으나, 정치적 혼란으로 성장이 침체 되었다.



필리핀 항공우주박물관 전시관 건물



박물관 야외전시장 전경



리잘공원 위를 비행하는 필리핀 최초 항공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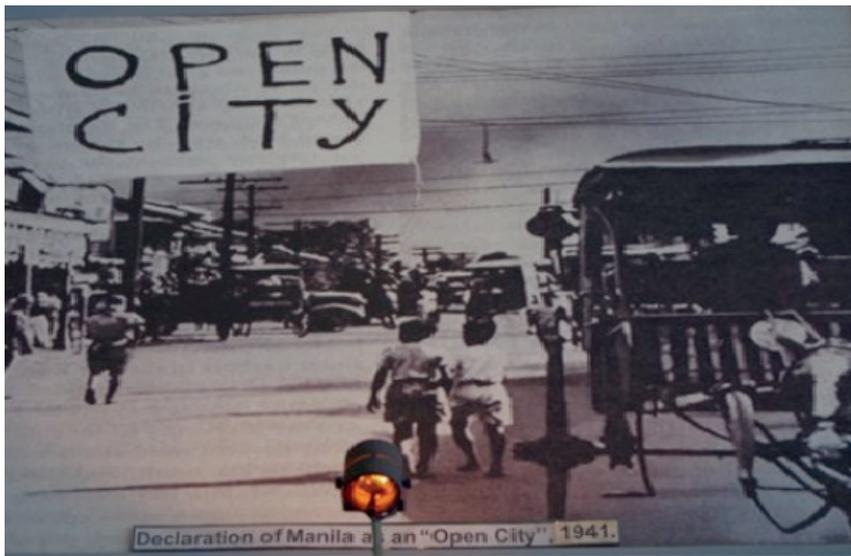
항공우주박물관에 전시된 필리핀 최초의 항공기

주권수호의 주력군으로 도약하는 필리핀 공군

항공우주박물관은 필리핀 공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청사진도 보여준다. 1947년 육군항공대를 주축으로 필리핀 공군은 동남아시아에서 3번째로 창설되었다. 한때 대규모의 美 공군이 주둔한 덕분에 3개의 곡예 비행팀을 운용할 정도로 공군의 활동이 왕성했다. 하지만 지속되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위기로 공군전력은 급감했다. 보유 항공기의 유지조차 어려워 일시적으로 전투기가 0대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2010년대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이 심화되자, 필리핀은 해·공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도입한 12대의 FA-50 항공기가 필리핀 공군의 주력전투기이다. 2016년 12월 27일, FA-50 2대가 필리핀 남부의 반군조직을 폭격했다. 이는 한국산 FA-50의 첫 실전 투입이었다. FA-50은 폭탄 명중률, 근접항공지원체계 등 모든 면에서 호평을 얻었다. 최근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획기적인 국방력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약 4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성능전투기 40대와 중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첨단전력을 확보한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필리핀의 태평양전쟁과 코레히도르섬

1941년, 전쟁 위험이 고조되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맥아더를 현역 중장으로 복귀시키면서 美 극동군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1941년 12월 22일, 일본군이 루손섬 북쪽에 상륙했다. 맥아더 휘하에는 1개 미군 사단과 필리핀 육군 10개 사단이 있었지만, 필리핀군은 소총·철모·야전삽 등 기본 장비도 갖추지 못했다. 맥아더는 모든 부대를 마닐라 서쪽에 돌출되어 있는 길이 42km인 바탄반도로 이동시켰다. 마닐라를 ‘오픈 도시(Open City)’로 선포한 맥아더는 마닐라만의 조그마한 섬인 코레히도르(Corregidor) 요새로 들어갔다. 올챙이 모양을 가진 이 섬의 길이는 6km이다. 1920년대 미군은 약 10년에 걸쳐 이곳에 군사 요새를 건설했다. 길이가 280m에 달하는 말린타(Malinta) 주 터널에는 좌·우측으로 24개의 수많은 보조 터널이 있었으며, 1,000개 병상의 지하병원과 지휘통제실 등이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다. 외부에는 사거리 25km의 대형화포를 포함한 56문의 해안포와 함께 6,000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1942년 5월, 일본군의 코레히도르 점령으로 사실상 필리핀 초기전투는 끝이 났다. 기적적으로 코레히도르를 탈출한 맥아더 장군은 호주의 브리즈번에 태평양전쟁지휘소를 다시 개설했다. 필리핀 전쟁유적의 압권인 코레히도르는 배편으로 마닐라에서 1시간 30분, 바탄반도에서 30분 걸린다.



태평양전쟁시 무저항도시로 선언한 마닐라



코레히도르섬의 미·필리핀군 추모 동상

마닐라만의 불침항모 ‘드럼 요새’

코레히도르섬이 일본군에게 점령되는 최후 순간까지 미군이 저항을 펼친 ‘드럼 요새’는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 요새는 바다 위의 바위섬을 깎고 시멘트를 퍼붓는 10년의 난공사 끝에 1919년 완공되었다. 전함 모양의 거대한 진지는 길이 106.7m, 폭 43.9m, 물 위로 12.2m 솟아있다. 견고한 강철과 콘크리트 웅벽 속에는 14인치 화포 4문이, 외부에는 소구경 화포와 대공포가 설치되어있다. 외양이 군함과 똑같은 이 요새는 지나다니는 선박들이 실제 함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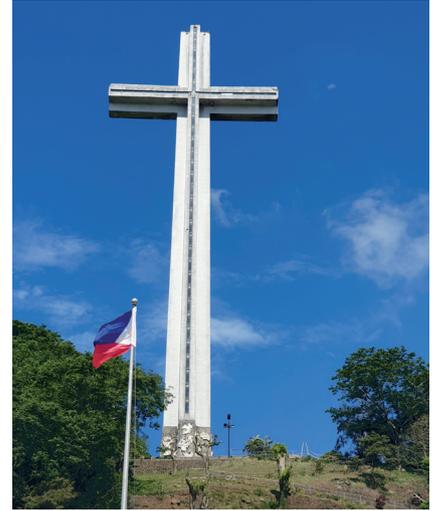


코레히도르섬 인근의 ‘드럼 요새’

오인하여 수시로 신호를 보내왔다. 전쟁 중 일본군은 이 요새에 2달 동안 거센 포격을 줄기차게 퍼부었다. 그러나 240명의 주둔병력 중 피해는 부상자 4명뿐이었다. 1942년 5월 7일, 코레히도르의 웨인라이트 중장이 ‘항복하라!’라는 지시문을 보내왔다. 즉각 화포의 주요부품을 제거하여 폐기했고, 모든 포탄과 장약은 바다에 빠뜨렸다. 일본군이 드림 요새를 점령했을 때, 재사용이 가능한 장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연합군 전쟁포로들의 '죽음의 행군' 현장

바탄반도의 사맛산 성지(Mt. Samat Shrine)는 전몰용사를 추모하는 필리핀의 상징적인 유적지이다. 해발 555m의 정상에는 높이 92m, 좌우 길이 30m, 폭 5.5m의 거대한 십자가 추모탑이 있다. 탑 전망대에서는 마닐라만과 바탄반도 격전지를 내려다 볼 수 있다. 1942년 4월, 이곳 싸움터에서 수만 명의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다. 4월 9일, 바탄반도에서 저항했던 연합군은 일본군에게 항복했다. 필리핀·미군 포로 8만 명은 불별더위에 100km 떨어진 수용소까지 살인적인 행군에 내몰렸다. 일본군의 구타 그리고 행군하는 도중 겪은 굶주림과 일사병으로 행군 도중 16,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맛산 아래 국도는 “죽음의 행군(Death march)” 현장이었다. 도로 주변에는 똑같은 형태의 하얀 비석들이 줄지어 있다. ‘죽음의 행군’ 코스를 따라 1km 간격으로 설치한 표지석이다. 비석에는 “Death march 00km”라는 간단한 표기와 지쳐 쓰러진 포로의 그림만 있다. [☞](#)



바탄반도 전투 전몰장병 추모 십자가



바탄반도에 남아있는 죽음의 행군 표지석



신종태 교수

2010년 국내 최초로 충남대에서 군사학박사를 취득했다. 충남대·국군간호사·조선대에서 전성사를 강의하면서, 세계 60여 개국의 군사 박물관과 전쟁유적지를 답사했다. 현재도 계속 답사여행을 하면서 『세계의 전쟁유적지를 찾아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한 달, 한 권

『숨겨진 건 죽음』, ‘고전 미스터리’의 부활



윤영천 작가

미스터리 애호가이자 독자/기획자/편집자/저자. 1999년부터 미스터리(mystery·추리) 소설을 소개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하우미스터리(howmystery.com)를 만들어 20년 넘게 운영 중이다. ‘셜록 홈즈 걸작선’, ‘브라운 신부 시리즈’, ‘레이먼드 찬들러 전집’ ‘킨다치 코스케 시리즈’, ‘앨러리 퀸 컬렉션’을 비롯해 수십 종의 미스터리를 기획·편집했다. 저서로는 『탐정사전』, 『미스터리 가이드북』 등이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잃지 않는 작품들을 보통 ‘고전’이라고 부르죠. 미스터리 장르에도 당연히 오래되고 가치 있는 고전들이 있지만 이는 종종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미스터리 장르는 영어권에서 ‘황금기’라고 불리는 시기에 주요한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황금기란 제1차대전(1914~1918)과 제2차대전(1939~1945)을 전후한 시기를 의미하는데요, ‘황금’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미스터리 장르가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읽히던 시기였습니다. 뛰어난 작가도 많았고, 상업적으로도 크게 성공했으며, 비평과 연구 모두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독자와의 공정한 게임’이라는 대전제 아래 다양한 세부 규칙이 덧붙었고, 마침내 ‘기이한 사건-탐정의 논리적인 추리-뜻밖의 결말’이라는 3단 구조가 완성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이 구조를 따르고 존중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작품들을 ‘고전 미스터리’라고 부르죠. ‘클래식 미스터리’, ‘황금기 미스터리’, ‘정통 미스터리’, ‘후더닛(Who done it) 미스터리’, ‘본격 미스터리’, ‘신本格 미스터리’ 등은 모두 비슷비슷한 의미입니다.

‘고전 미스터리’는 대부분 독자들이 ‘미스터리’를 떠올릴 때, 바로 생각나는 미스터리 장르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묘한 트릭, 공정하게 주어진 단서, 독자와 치열하게 게임을 펼치는 명탐정, 논리와 이성을 중시하는 태도. 우리가 익숙한 아서 코난 도일, 애거사 크리스티, G. K. 체스터튼, 앨러리 퀸, 존 디슨 카더 등 미스터리 작가들은 모두 이런 스타일의 작품으로 거장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고전 미스터리는 매력적이지만 융통성이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탐정과 독자와의 게임, 반전에 몰두한 나머지 급격한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된 거죠. ‘황금기’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던 황폐한 시기였지만, 고급

저택에 모인 작품 속 등장인물들은 그저 우아하기만 합니다. 또한, 경찰의 조직 수사, 과학 수사가 발전하면서 명탐정은 점점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죠. 시장도 ‘고전 미스터리’가 아니라, ‘범죄 소설’이나 ‘스릴러’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전 스타일’을 현대에 되살리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고전 스타일은 미스터리 독자들의 영원한 낭만이 고스란히 담긴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긴 서두를 준비한 이유는 이번 호에 소개하는, 『숨겨진 건 죽음』(2019)이 ‘탐정소설의 황금기를 떠올리게 한다’라는 극찬을 받았고, 상업적으로도 크게 성공한 시리즈이기 때문입니다. 작가 앤서니 호로위츠는 아동 청소년 작가이자 드라마 각본가로 명성을 얻었고, 코난 도일 재단의 공식 인증을 받은, ‘셜록 홈즈 시리즈’의 후속편 『실크 하우스의 비밀』(2011)을 발표하면서부터 또다시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고전 미스터리를 현대에 맞게 되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숨겨진 건 죽음』은 ‘호손과 호로위츠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입니다. 실직한 형사 호손이 탐정 홈즈 역할을, 호로위츠가 조수 왓슨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손이 자신의 수사를 소설로 각색해 줄 작가로 호로위츠를 선택하면서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재미있는 건 작품 속 호로위츠와 작가 호로위츠가 같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작가가 자신의 소설 속 인물로 등장하는 경우가 드물지는 않지만, 그 섬세한 디테일 덕분에 독자는 작가 호로위츠와 수사를 함께하는 듯한 생생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래도 시리즈 세팅에 무게 중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첫 작품과 달리, 『숨겨진 건 죽음』은 지루할 틈 없이 빠르게 전개됩니다. 잘나가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혼 소송의 상대측으로부터 와인병으로 협박을 받습니다. 며칠 뒤, 실제로 와인병에 가격당해 살해되죠. 와인이 흥건한 사건 현장에는 초록색 페인트로 ‘182’라는 알 수 없는 숫자까지 적혀 있습니다. 명확한 협박자가 있으니 사건은 쉽게 풀리는 듯하지만, 또 다른 용의자들이 수면 위로 하나씩 떠오릅니다. 살해당한 변호사의 의뢰인, 살해당한 변호사의 남편, 살해당한 변호사의 친구, 협박 당사자와 친한 출판업자. 그들은 모두 조금씩 거짓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과박한 탐정 호손도 문제입니다. 호손을 지독하게 싫어하는 현직 경찰들이 호로위츠를 압박하기 시작하죠. 몰래 수사 정보를 빼돌리지 않으면 자신이 각본을 맡은 드라마 촬영을 방해하겠다는 경찰들. 사이에 끼 버린 호로위츠는 갈팡질팡 어쩔 줄 모릅니다.

『숨겨진 건 죽음』에는 작가가 소설 속에 뛰어들어 직접 화자로 등장합니다. 독자와 비슷한 이 화자 덕분에 독자는 탐정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현대 작품이지만, 속 시원하게 말하지 않는 명탐정, 알리바이 파해, 소거법, 다잉 메시지, 반전에 반전을 더하는 구조까지, 고전 미스터리 특유의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수시로 좌절하고, 자신의 (실재) 작품을 집요하게 홍보하는 호로위츠의 독백은 이 작품의 색다른 즐거움입니다.

미스터리가 세상에 본격적으로 선보여진 지도 어언 180년. 그동안 미스터리 장르의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계속 모습을 달리해 왔습니다. 블록버스터 영화 「나이브스 아웃」(2019) 때문일까요? 고전 미스터리 맛을 어떻게든 살린 작품들이 요즘 부쩍 늘어난 기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 낭만적인 고전 미스터리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숨겨진 건 죽음』
앤서니 호로위츠 지음 | 이문선 옮김 | 이문선 옮김 | 영리채널 펴냄

식탁 위의 군대 이야기

밑: 빵에 담긴 역사와 문화



이인이 칼럼니스트

‘외식관광뉴스’ 대표이자 ‘한국외식관광진흥원’ 이사로 활동 중이며, 오산대학교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다양한 식문화와 여행 명소를 경험하며 얻은 지식을 글과 사진으로 남기고 있다. 『테마가 있는 여행 55선』(공저)을 출간했다.

밀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알려진 이라크, 시리아, 튀르키예 일부 지역에서 기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밀을 이용한 초기 음식은 ‘플랫 브레드’라는 납작한 빵으로, 오늘날의 ‘난’이나 ‘토르티야’와 유사한 형태였을 것이다. 이후 밀은 서남아시아를 통해 이집트로 전해지게 되었고 발효 기술이 도입되며 부드럽고 부풀어 오른 빵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밀가루는 다른 곡물가루와 달리 반죽하면 특유의 탄성과 응집력이 생긴다. 이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 성분 때문인데, 이러한 성질로 빵, 페이스트리, 파스타 같은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 사용하는 밀가루의 종류에 따라 식감과 맛이 달라지는데, 단백질 함량이 높은 강력분은 빵이나 피자처럼 쫄깃함이 필요한 음식에 적합하며, 중간 정도의 단백질 비율을 가진 중력분은 덜 쫄깃한 식감을 가지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단백질 함량이 낮은 박력분은 주로 케이크나 쿠키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

몇몇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밀가루로 만든 빵이 서양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다. ‘군주’나 ‘주인’을 뜻하는 ‘lord’는 원래 앵글로색슨어로 ‘빵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hlaford’에서 유래한다. 귀부인을 의미하는 ‘lady’ 역시 ‘hlaefdige’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빵을 반죽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처럼 영어에서 빵이 존경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의 어원이라는 점에서, 그 영향력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적 사건이 빵 속에 담겨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빵 중 하나인 크루아상은 초승달 모양을 가지고 있다. 1683년, 오스만 튀르크 제국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를 정복하기 위해 15만 대군을 보냈다. 이때 오스트리아를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군과 신성 로마 제국군이 참전하였고 오스트리아는 비엔나를 수성하며 승리를 거두었다. 전쟁이 끝난 뒤, 제빵사 피터 벤더는 승리를 기념하며 오스만 제국군의 군기 속 초승달을 본떠 크루아상을 만들었다. 이후 오스트리아 출신의 마리 앙투아네트가 프랑스의 왕비가 되면서 이 빵은 프랑스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빵은 군인들에게도 중요한 식량이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음식인 초르니 흘렙(chorny hleb)은 ‘흑빵’으로 불리지만 사실 호밀로 만들어 갈색에 가까운 빵이다. 호밀은 밀보다 저렴해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들의 주식으로 사용되었고, 당시 유럽 군인들도 흑빵을 주로 먹었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사파비왕조의 이란을 침략한 후 흑해까지 남하하기 위해 함대를 창설하고 군제를 개편하며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에 임한다. 그러나 1722년, 러시아에서 맥각중독이 발생하게 된다. 이 병은 썩은 호밀에서 자라는 균으로 인해 발생하며, 오염된 호밀로 만든 흑빵을 섭취하면 경련과 심한 통증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다. 당시 이 병으로 약 3만 명의 병사와 수많은 말이 희생되었다. 결국, 표트르 대제는 남하 정책을 완성하지 못한 채 1725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빵의 발전에 군대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경우도 있다. 부드러운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효모를 사용해 발효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과거에는 맥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누룩이 빵을 부풀리는 효모로 사용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미국 정부는 전쟁터에서도 신속하고 간편하게 발효할 수 있는 효모가 필요했다. 이에 1943년 찰스 플라이슈만이 오스트리아에서 개발한 건조효모를 미국에 들여와 군대에 공급하게 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건조효모는 일반 시장에 판매되었고, 오늘날 제빵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효모 형태로 자리 잡았다.

밀가루, 달걀, 설탕, 버터를 주재료로 하여 만들어지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빵의 일종인 케이크에도 흥미로운 사실이 담겨있다. 케이크가 둥근 형태를 띠게 된 이유는 고대 종교의식과 관련이 있다. 고대 켈트인들은 봄을 맞이하는 벨타인 축제에서 둥근 케이크를 언덕 아래로 굴리며 제사를 지냈다고 전해진다. 이런 전통은 오늘날에도 케이크가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는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케이크를 나누며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출처: pixabay

동서양 그랜드투어

K-팡파르 대취타



국립국악원 대취타 연주
(QR 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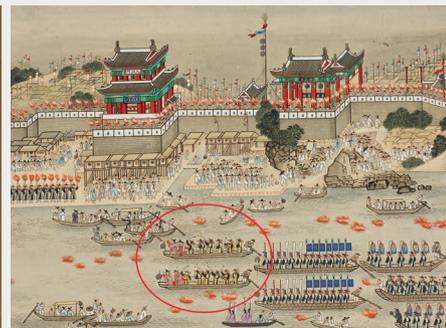
국방부 군악대 대취타 연주
(QR 코드)



이윤주(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

국립국악고, 한양대, 영남대에서 국악 작곡을 공부했다. 국악교육, 공연기획, 학술연구 등을 담당하는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로 「세종의 소리 여민동락」을 직접 기획하였다. 평상시에는 장르를 가리지 않는 관람객으로 일상의 피로함을 객석에서 치유한다.

「평안감사향연도 월야선유도」는 평안도 관찰사 부임 환영 잔치를 담은 풍속화로 대동강 변에서 벌어지는 선상 연회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다. 이 그림 속에는 연회를 빛나게 해주는 취타대의 모습이 등장한다. 대취타에서 ‘취(吹)’는 부는 악기를, ‘타(打)’는 치는 악기를 의미하고 이를 합한 대취타는 대규모 군례악으로 왕의 거동이나 사신의 행렬에 동반된 음악을 나타낸다. 과거 취타대는 의장의 기능보다는 출궁, 이동 등에 거행되는 의례적 행위로 왕실의 위엄을 드러내며, 시간을 조절하는 군사적 통신용 신호기의 역할이 강해 군대의 행진 및 개선 등 상황에 쓰였다.



김홍도, 평안감사향연도 월야선유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적색원 내 대취타 위치)

악사들은 노란색 철릭을 입고, 남색 띠를 두르며, 머리에는 꿩 깃털을 꽂은 초립을 쓰고, 팔뚝에는 흰색 한삼을 껴다. 대취타는 군인 복식을 한 집사가 지휘봉인 ‘등채’를 머리 위로 들고 ‘징을 한 번 울려 대취타를 연주하라’는 뜻의 “명금일하(鳴

金一下) 대취타 하랍신다”라는 구령을 외치면 징을 한 번 치고, 용고의 변죽(테두리)을 때린 후 다른 악기들을 일제히 연주하며 시작된다. 연주를 마칠 때는 집사가 소리를 그치라는 뜻의 “흰화금(喧譁禁) 하랍신다”를 외치며 연주가 종료된다.

대취타는 행렬의 이동에 용이한 타악기, 관악기로만 편성되어있다. 징·자바라·용고·장구가 일정한 리듬을 두드리고, 나발·나각은 단일 음을, 큰 음량의 태평소는 시원하고 장쾌한 선율을 연주한다. 대취타는 나라가 굳세고 평안해지기를 바란다는 뜻의 ‘무령지곡(武寧之曲)’이라고도 부른다.



자바라, 용고, 나발, 나각, 태평소

취타대의 기록을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림으로는 「화성원행반차도」가 있다. 1795년, 조선의 르네상스를 연 군주로 평가 받고 있는 정조의 즉위 20년, 정조는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하기 위한 행차를 거행했다. 정조의 화성 행차 전반을 그린 두루마리 형태의 그림인 「화성원행반차도」에는 말을 타고 연주하는 나발, 태평소, 징, 자바라, 북, 장구, 해금, 대금 등 취타대의 기록이 남아있다.



화성원행반차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적색원 내 대취타 위치)

대취타를 연주하던 군악대는 1900년 서양식 군대가 들어오면서 해산되었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1961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기념하여 국립국악원 취타대에 의해 재연되었다. 1968년 8월

이 되어서야 육군 국악대가 정식 출범되었고, 현재 국방부 전통악대가 대통령의 외교사절 의전행사, 국제교류 등에 군례악을 연주하고 있다.

예부터 국빈을 맞을 때는 자국의 역사와 전통을 담아 엄정한 격식을 갖춘 ‘의전’을 선보였다. 현재도 대취타는 국가적인 스포츠 이벤트와 국빈 방문 시에 수반된다. 1988년 서울올림픽, 2002 한일월드컵,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개막도 취타대가 행사의 시작을 알렸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국빈의 방한 때도 취타대가 활약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에든버러 페스티벌’은 제2차 세계대전의 상처를 치유하고 유럽문화의 부흥을 위해 1947년 시작된 세계 최초 최대의 군악제이다. 매년 20만 명 이상의 관객이 모여들 정도로 명성이 대단한데, 축제의 대미는 군악대 축제인 ‘Edinburgh Military Tattoo’로 2003년에는 국방부 군악대도 처음으로 참가하여 세계인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오랜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의 대취타는 독일, 미국, 캐나다, 핀란드 등의 군악제에서도 주목 받아왔다.

현재 취타대는 국방부 군악대대 전통악대에만 편성되어있으며, 아쉽게도 경찰국악대가 창설되었다 해체되었다. 대취타는 주말마다 열리는 ‘경복궁 수문장 순라의식’에서 직관할 수 있다. 필자는 전통문화가 담긴 대취타를 취주하는 공군 취타대의 모습을 상상하며, 우리 공군에도 공군 국악대가 창단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4]



국립국악원 정악단 대취타

영화로운 나날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박지수 영화전문블로거

8살엔 영화관을, 20살엔 영화제를 처음 가봤습니다. 25살엔 원고료를, 30살엔 출연료를 처음 받아봤습니다. 「라라랜드」의 오프닝과 「헤어질 결심」의 엔딩을, 「기생충」의 이미지와 「원스」의 사운드를 좋아합니다. 한 영화를 백 명이 본다면 백 편의 작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만의 작품을 잊지 않기 위해 네이버 블로그 '제이스의 피노키오'를 운영하며 계속 글을 씁니다.

유난히 길었던 여름을 지나 언제 그랬냐는 듯 쌀쌀한 겨울입니다. 겨울만큼 계절감이 잘 드러나는 계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겨울은 영화에서 단골 소재이자 주요 배경이 됩니다. 「러브레터」, 「이터널 선샤인」, 「러브 액츄얼리」. 겨울, 하면 떠오르는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할 영화도 대표적인 겨울 영화입니다. 바로 햇볕이 내리쬐는 LA를 배경으로 한 영화 「라라랜드」입니다.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도시 로스앤젤레스. 유명 배우가 되고 싶지만 카페 알바와 오디션에 정신없는 미아(엠마 스톤 분)와 재즈 바를 열고 싶지만 레스토랑에서 캐럴을 연주하는 세바스찬(라이언 고슬링 분)은 각자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당연하다는 듯이 사랑에 빠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지만 가장 빛나는 순간을 함께하며 서로를 채워줍니다. 재즈와 영화, 사랑이 뜨겁게 발산합니다.

누가 봐도 뜨거운 여름 영화처럼 보이는 「라라랜드」가 겨울 영화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작품은 5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막 시작에는 계절이 큼지막한 자막으로 들어갑니다. 'WINTER'로 시작해 사계절을 거쳐 다시 'WINTER'로 끝내는 형식이죠. 영화 속 사랑 이야기는 계절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봄 자막 뒤에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여름 뒤에는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순간이, 가을 뒤에는 갈등의 조짐이, 마지막 겨울 뒤에는 재회와 엔딩이 이어집니다. 계절을 문자로서 강조하고, 줄거리도 계절을 상기시키다니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과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관객은 러닝 타임 내내 뜨거운 LA의 날씨를 보고 있지만, 실상 영화는 사계절을 이보다 더 분명히 드러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라라랜드」는 겨울에 처음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이 5년 뒤 겨울에 다시 우연히 만나 인연을 마무리하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적으니 ‘겨울’ 영화가 맞는 것 같습니다. LA의 온화한 날씨 탓에 그 겨울이 아지랑이 피는 아스팔트와 야자수가 그려진 천막으로 등장하지만 말이죠.

영화와 관객의 미묘한 오차는 대부분 의도된 것입니다. 의도된 것은 대부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라라랜드」에는 이런 오차가 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객마다 의견이 갈리는 엔딩 장면이 있죠. 이를 두고 열렬히 사랑하던 남녀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떠나가는 비극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각각 원하던 바를 얻었고 나름의 행복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다시 만났을 뿐이고 제 갈 길 가면 그 만이라는 희극으로 읽을 수도 있죠.

이와 연결 지어 「라라랜드」를 사랑의 테마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연인 간의 사랑은 어긋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꿈에 대한 사랑으로 대입하면 로맨틱하고 성공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두 청년이 함께 길을 동반자를 만난 것이죠. 서로에게 끌린 이유도 목표에 대한 열망이었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미아는 작품 출연 기회를 얻었고 세바스찬은 재즈 바를 열 자본을 모았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서로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져서 헤어지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같은 영화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작품이 됩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에 따라 관점이 달라집니다. 한 영화가 개봉해서 백만 명이 봤다면 백만 편의 영화가 생기는 셈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간을 내고 돈을 쓰며 영화를 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영화를 보고 느낀 것을 글로 남기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영화관 의자에 꼼짝하지 않고, 지하철에서 액정 너머로 보는 영화조차 이렇게 다른데, 하물며 삶은 어떨까요. 식상한 교훈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행복이란 필터를 끼고 보면 식사한 끼, 산책 한 번, 노래 한 곡, 그리고 영화 한 편이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올해도 독자 여러분 모두 영화에서 행복을 느끼셨기를, 내년이라는 속편에서도 ‘영화로운 나날’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생각하는 그림

마티법(Loi Mathys)

프랑스에는 자신의 휴가를 다른 사람에게 기부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마티법(Loi Mathys)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병에 걸린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동료들이 유급 휴가를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5년 5월 프랑스 의회에 의해 법제화된 이 휴가 기부법은, 2011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9살 소년 '마티(Mathys)'의 이름을 빌려왔습니다.



2011년 당시 암 투병 중이었던 마티. 그의 아버지 제르맹과 가족들은 마티를 간호하기 위해 다니던 회사에서 부여된 휴가를 모두 사용했지만, 그의 병세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제르맹은 아들의 간호를 위해 퇴사를 고민했지만, 회사를 그만두면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걱정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회사에 알려지자, 그의 동료들은 제르맹에게 자신들의 유급 휴가를 모아주기로 했습니다. 당시 제르맹의 회사에는 휴가를 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지만, 추가적인 경영 부담이 없고 직원들의 나눔에 대한 취지를 감안해 경영진은 직원들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휴가일은 총 170일. 동료들이 모아 준 휴가 덕분에 제르맹은 아들의 병간호에 집중할 수 있었고, 안타깝게도 마티는 결국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제르맹은 아들의 마지막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마티가 세상을 떠난 뒤, 제르맹은 자신이 받은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처럼 중병을 앓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동료들이 유급 휴가를 기부할 수 있게 하는 캠페인을 시작했고, 그 결과 2015년 프랑스 의회는 ‘마티법’을 정식으로 법제화 해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편하게 간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티법’은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2019년 수출입은행에서 개인의 보상 휴가를 동료에게 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을 시작으로 많은 기업에서 휴가 나눔제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재산 중 하나입니다. 자식을 간호하는 제르맹을 위해 자신들의 시간을 기부한 동료들의 행동은, 어쩌면 가장 소중한 가치를 동료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어진 마음일 지도 모릅니다. 공군인 여러분! 우리의 동료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닥쳤을 때,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



그림 MAVIN(정오성) 작가

동화 같은 색채와 따뜻한 표현기법과 내용을 그리려고 노력하는 일러스트레이터. 2018년부터 MAVIN(마빈)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이다. 세스코&무신사 협조 전시 참여, 스트레이키즈 뮤직비디오 아트워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인스타그램 @os.mavin)

편집실입니다

눈이 전하는 위로

어느덧 부쩍 추워진 날씨 탓에 이제 점점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겨울은 늘 새롭게 맞이했던 한 해가 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매년 찾아오는 겨울과 연말이지만 이 시기는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겨울과 연말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는 아마도 차갑고도 아름다운 눈일 것 같습니다. 월간 『공군』 편집실에서는 ‘눈’과 관련된 시 한 편을 독자들께 나누며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눈

윤동주

지난밤에
눈이 소오복이 왔네
지붕이랑
길이랑 밭이랑
추워한다고
덮어주는 이불인가봐
그러기에 추운 겨울에만 나리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中-

윤동주의 시 「눈」은 겨울의 고요한 풍경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워한다고 덮어주는 이불인가봐’라는 구절은 추운 겨울에 내린 눈을 이불에 비유하며, 차가운 속성을 가진 ‘눈’이라는 자연 현상을 통해 따뜻함과 포근함을 느끼게 하는 뛰어난 표현력을 보여줍니다.

이 시를 읽고 우리의 2024년을 돌아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2024년은 각자의 무게와 의미가 담긴 다시 없을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의 목표를 향해 분주히 달리기도 했고, 또 다른 이들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힘든 걸음을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월간 『공군』 편집실도 새로운 기획과 특집들을 고민하고 때로는 마감에 치이며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바쁜 한 해를 보낸 모든 이들에게는 올해 보내며 얻은 우리의 경험과 감정들을 덮어주는 따뜻한 ‘눈’ 같은 존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겨울과 연말은 모든 것들을 얼어붙게 하고 한편으로는 무상한 세월의 흐름에 공허함을 느끼게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시 속의 ‘눈’과 같은 존재가 있기에 오히려 그 이면에서 따뜻함을 찾을 수 있는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 속에서 등장하는 따뜻한 ‘눈’은 추위에 얼어붙은 것들을 덮어주며 세상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자연이 보내는 작은 격려인 것 같습니다. ‘눈’이 세상을 포근히 감싼 것처럼 우리 모두 지나온 것들을 안으며 한 해 동안 수고한 자기 자신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해보길 바랍니다. ☑

책 읽는 공군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

상병 민동욱

“나의 무지함이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것이 싫어 책을 읽는다”

『채식주의자』는 ‘폭력’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물리적 폭력으로만 이를 해석한다면 이 책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필자는 『채식주의자』를 이해하기 위해 폭력을 3가지로 구분하여 바라봤다.

첫째, 사회적 관습이 행하는 폭력이다. ‘채식’, ‘정신병원’ 등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시선이 여기에 해당된다. 주인공 영혜는 ‘시선도 무엇이든 해칠 수 있는 무기가 된다’라고 말한다. 이 말 속에는 사회적 관습에서 기인한 타인의 시선이 사람의 자아와 내면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력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저 단어들을 들었을 때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편협한 시선은 누군가를 상처 입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둘째, 근대 문명이 행하는 폭력으로 첫 문단을 구체화한다. 이 관점은 문명을 발전시킨 ‘인간’이 자연을 착취해왔다는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주체가 되는 인간의 근대 문명과 이에 대해 타자가 되어온 자연을 가부장적이고 이분법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물론 그 이전부터 가져온 인간의 육식문화가 자연을 착취하는 모습을 가시화시키고 대안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폭력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 바로 영혜의 아버지가 영혜에게 억지로 고기를 먹이는 장면이다. 영혜는 이런 폭력성에서 벗어나 자신의 주체를 찾고자 채식주의자가 될 것을 선언한다. 이로 인해 영혜는 아버지의 폭력과 규율을 거부하여 체제 밖(정신병

원)으로 추방당하게 된다. 반대로 언니 인혜는 폭력과 규율을 받아들임으로써 세계에 순응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점점 정체성을 잃어가며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세상을 사는 거 같다며 스스로 죽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셋째, 인간의 생태적 조건으로 인해 발생한 폭력이다. 인간은 다른 생명을 먹으며 생을 연명하고,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간다. 어떠한 이상사회를 만들어도 이러한 것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인간은 생존을 위해 다른 생명을 취해야 하는 근원적 폭력성을 가진 존재인 것이다.

이렇듯 폭력이 사라진 세상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는 불가능한 세상을 꿈꾸기보다 인간의 삶과 사회의 기반이 어떠한 폭력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직시하며 나의 무지함이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게 끊임없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



『채식주의자』
한강 지음 | 창비 펴냄

마지막 모습이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Date . 2024 / 11 / 12

연말은 여러모로 멜랑콜리한 감정이 든다. 슬픈 것 같으면서도 우울하기도 하고 회상과 고독감에 잠기는 복잡한 감정들이 내면을 가득 채운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게 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1월 1일의 자정 종소리를 기다리며 다짐했던 계획, 온몸이 떨릴 만큼 기쁘던 날들, 이제는 텅 비어버리고 공허해진 후회가 복잡스럽게 얽혀 머릿속을 떠다닌다. 추워지는 계절과 함께 다가오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전역도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왔다. 나의 군 생활은 어떠했을까? 처음 입대했던 마음가짐은 여러가지 생각이 들게 한다.

나는 천성적으로 정이 많은 사람이다. 하지만 나와 함께 생활한 동료들은 이를 의아하게 여길지도 모르겠다. 관심은 남의 본질을 흐뜨린다는 소신이나 그저 귀찮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며 무신경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말과 전역이라는 변화가 주는 성찰의 기회를 빌려 돌아켜보니, 그동안 내가 무관심한 까닭이라 꼽은 것들은 아무래도 핑계인 것 같다. 내가 동료들에게 정을 주지 않던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정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헤어짐이 너무나 두려워서 친해지지 않기를 택한 것이다.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꽃이 시드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새싹의 녹미(綠美)와 화사한 꽃잎이 주는 짜릿함도 얻지 못한다. 감정의 등락이야말로 삶의 풍부를 더하는 비법일 텐데 나는 스스로 이것을 차단한 채로 군 생활을 보내버린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창시절에는 친했다가 지금은 연락하지 않는 동창, 떠나간 사랑이 그랬듯이 이별은 정제된 상황에서만 오지 않는다.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모습, 지하철을 타러 가는 뒷모습과 같이 평범한 순간이 예상치 못하게 마지막이 되기도 한다. 전역이라는 분명한 끝맺음이 있는 관계는 축복받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씨앗도 안 뿌린 채 꽃이 피길 바랬던 나의 모습이 추하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양심 없는 작별을 쏟아내자면 마지막 모습이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바라본다. 까칠한 나에게 손길을 내밀어준 이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정이 많은 사람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결정적으로는 나를 스쳐가는 모든 인연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연말은 올해의 사건을 추억하기도 하고 이에 대한 후회를 토해내기도 하며 새로운 걸음을 내딛을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전역이 마찬가지로 나의 미숙했던 점을 되새기며 더 나아갈 수 있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희망한다. ■

오늘의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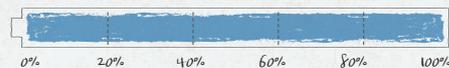


MEMO

2024년 보내고 전역을 맞이하며



오늘 하루 만족도



마음의 소리

고해미

koe11**@naver.com

안녕하세요? 월간 『공군』을 보는 재미에 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이번 달 여군 과학수사관 방희원 중사의 기사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공군에 수사관이라는 직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방희원 중사님께서 과학수사관을 ‘현장에 남겨진 흔적을 토대로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해 주셨는데 이를 들으니 더욱 이 직책이 멋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올리브를 다룬 ‘식탁 위의 군대 이야기’도 너무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 제공해주셔서 감사하고 늘 고생해주는 월간 『공군』에게도 큰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AF

월간 『공군』에 큰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월간 『공군』 편집실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들을 구상하며 독자분들에게 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영

1030s**@naver.com

공군에서 복무하는 아들 둘을 둔 부모이자 월간 『공군』을 재미있게 보고 있는 독자입니다. 제11회 벨기에 국제군악제 영상을 보며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내용과 함께 한국적인 모습까지 보여주는 공군 군악대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군악대 특유의 절도와 재미를 보여주면서도 한 편의 예술 공연 같은 느낌을 주는 공군 군악대의 모습을 보며 ‘국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 타국에서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긍지를 일깨워 준 공군 군악대원들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더불어, 나라를 위해 젊음과 열정을 바치고 있는 모든 공군장병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AF

공군 군악대는 다재다능함을 바탕으로 우리 공군이 가진 ‘soft power’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군 군악대는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인선

woaik25**@nate.com

‘전군 최초 여군 과학수사관 방희원 중사’에 대한 기사를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수사라는 일이 얼마나 세심하고 철저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데, 방 중사가 그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녀의 노력과 열정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여군들이 과학수사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F

월간 『공군』 편집실에서는 방희원 중사의 이야기처럼 공군의 다양한 인물들을 조명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활약하고 있는 공군인들의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방법



마음의 소리

월간 『공군』 홈페이지(afzine.co.kr) <독자의견>에 업로드
매월 15일까지 / 250자 내외 /
기념품 수령을 위한 주소·연락처 기재 필수

책 읽는 공군 /공군인의 하루

공백 포함 1,200자/1,100자 내외, 매월 12일까지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후 전자우편 전송
(인트라넷: uk0319@af.mil / 인터넷: afzine@korea.kr)



구독문의 QR코드



독자의견 QR코드



월간
공군

558

발간등록번호
38-1600006-000001-06

ISSN 2383-5524



9 772383 552001

